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19 가을 제24호

드림제주 21

DREAM JEJU 21



남극노인성

오승철

확하니 하늘을 긋는 별뿔별도 아니고

턱하니 터를 잡은 북극성도 아니고

초저녁 자리젖 뜨러

나가다가 보는 별

서귀진성西歸鎮城 터만 남은 솔동산에 올라서면

바다 끝 하늘 끝 사이

걸쳐놓은 손가락같이

고단한 물마루 위에 걸쳐진 불배 몇 척

불배 몇 척, 걸쳐진, 고단한 저 물마루

별을 보라

간신히 길 하나 돌려세우고

한 마디 굳이 삼킨 채 홀로 뜨는 별을 보라

단 한 번도 너에게 소원 빌어본 적 없다

수평선 위 한 뼀 가웃

내 그리움의 한 뼀 가웃

둥그런 윤회의 길썬 한 뼀 가웃 별이 뜬다

시집 [오키나와의 화살표]에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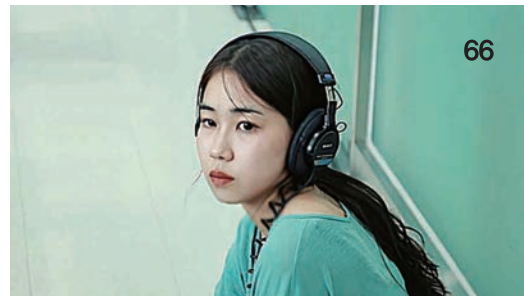
서귀포시 위미,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등단,
오늘의시조시인회의 의장



CONTENT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19 가을 제24호

02 사진과 시 남극노인성	34 제주어로 읽는 산문 나의 받아쓰기, 고무신
04 발간사 진화, 오래 걸리는 것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46 의회는 지금 48 생활 속 조례 50 의정 모니터 54 청탁 금지법 Q&A 56 의정 칼럼
06 제주의 추석 08 줄다리기와 등돌들기로 찾아간 제주의 팔월명절 10 만두와 오름	60 열린 의회 기고 60 마을로 간 복지관, 그 후 64 지역상품권, 그것이 답이다
12 환경의 가치 12 경관 사유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18 경관은 공공재, 더 이상 사유화 허용해선 안 돼	66 소확행 66 영화감독 부은주 72 건강을 지키자 74 굴림추색
22 IB교육, 본질을 보자 22 IBDP 교육과정 도입 배경과 현황 24 '국제공인 평가교육과정(IB)' 8년차 국제학교 가보니	76 제주의 유산 조선시대 서귀포인들은 왜 인공수로를 냈을까 84 음식 관련 제주어 속담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
28 제주 속으로 28 우리 동네 이곳 34 전통시장을 찾아서 38 포커스 제주 42 제주의 노포(老鋪)를 찾아서	86 제주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보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제주21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드림제주21"의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council.jeu.kr/의정활동/의회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41-2285)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뿌리며
걸고 또 걷는다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발행일 2019년(가을호 통권 제24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팩스 064-741-2329
편집인 오정훈 사무처장
편집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미디어팀
디자인 · 인쇄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064-757-0523

진화 오래 걸리는 것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Evolution, I think about the meaning of what takes long.



한 해의 시작이 가슴 뛰는
삶의 애기로부터라면,
그해의 마무리는
되돌아보는 길을 걷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이제 곧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러한 때에, 저는 문득 ‘진화’를 생각합니다.

최근 진화학자이자 생물철학자인 서울대 장대익 교수가 다윈의 ‘종의 기원’ 초판 번역본을 출간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번역본은 대개 6판에 대한 번역본이었다고 합니다. ‘종의 기원’ 초판은 다윈의 사상과 연구가 가장 진솔하게 담긴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떠올리면, ‘진화(evolution)’라는 용어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초판을 번역한 장대익 교수는 서문에서 “다윈은 ‘진보(progress)’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진화’란 표현을 쓰지 않고 줄곧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밝힙니다.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진화’라는 표현 때문에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 등 ‘경쟁’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모습의 일면을 표현하는 의미로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변화를 동반한 계승’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는 경쟁하며,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서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으로, 인간종뿐만 아니라 다른 무수히 많은 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은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라며,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즉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라는 용어는 자주 언급되지만, 지구상에서 ‘진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말합니다. 진화의 물결을 타고, 지구상에 이렇게 살아남은 종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고, 대견한 존재입니다. 변화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나아가는 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힘입니다.

이제, 다시 제주를 생각합니다. 제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어울려 살아온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어울림이 점차 확장되고, 내연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따뜻함을 손에 손으로 전하는 제주인의 유전 인자를 발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옛 모습, 추석의 풍경들

줄다리기와 등돌들기로 찾아간 제주의 팔월맹질

글 김순이 / 시인, 향토사학자



추석맹질은 음력 8월 15일이라 팔월맹질이라고도 한다. 제주에서는 ‘닭 굽는 8월’이라 하여 닭들까지도 주워 먹을 게 없어 굽는 달이다. 절기로는 풍성한 가을인데 실제로는 넘기가 힘든 달이다. 조, 피, 메밀, 산디[陸稻:밭벼] 등 밭곡식들이 한창 익어가는 중이지 아직 거둬들일 때는 아닌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육지의 상황이지 제주의 상황은 아니었다.

줄다리기

벼농사와 거리가 먼 제주는 밭벼인 산디도 익기 전이라 육지에서 온 햅쌀을 구입해서 명절상을 차린다. 떡도 많이 하지 않는다. 송편을 하는 집도 있고 밀가루로 상웨떡을 하는 집도 있다. 산적이나 전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한다. 물자도 부족하거나 아직도 무더운 기운이 남아 있어 애써 마련한 음식이 저녁이면 상해 있기 때문이다. 돼지추렴이나 소추렴도 많지 않다.

이 무렵은 여름 동안 눅눅했던 바람결이 하루가 다르게 까실까실해지면서 풀 말리기에 아주 좋다. 겨울 동안 소나 말에게 먹일 건초를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풀도 이 시기를 놓치면 줄기가 너무 드세어 소먹이로는 적당치 않다. 창부네는 차례를 지내고 나자 아버지가 일옷으로 서둘러 갈아입으며 식구들을 재촉했다.

“망오름 굼부리에 감져, 그레 오라.”

일러스트 / 김주영



망오름 굴부리에는 풀밭이 있다. 봄소풍 갔을 때 아이들이 뒹굴며 놀던 곳이다. 지금은 여름 지나면서 풀이 아이들 키만큼 우거졌을 것이다.

오늘이 맹질날이니 창부는 당연히 친구들과 놀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쇠촛하러 간다니 죽을 맛이다. 입이 저절로 비죽이 나와서 오름을 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벌써 낮으로 출(꼴)을 베고 있었다. 창부와 누나는 두 팔로 풀들을 안아 한군데 모아 놓았다. 오름에서 부는 바람이 푸릇한 풀 향기를 뿌리며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쳐갔다.

이날 오후 팽나무 삼거리에서는 줄다리기 시합이 벌어졌다.

‘추석맹질날 남녀줄다리기시합’ 예고는 한 달 전부터 마을에 나돌았다. 해마다 맹질날 오후에는 줄다리를 남자편 여자편으로 나눠서 해 왔다. 여자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결과는 여자편이 이기기로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허주마는 길고 짧은 것은 대박사 허는 겁주.”하면서 마을청년회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오후가 되어 팽나무 평상에는 얼추 남자 20명 여자 30명이 모여들었다. 여자가 훨씬 많았으나 처녀들은 별로 없고 정순이할망을 비롯해서 65세 넘는 할망들이 10명이나 됐다.

청년회장 종출이가 여자들 쪽으로 와서 여기 나온 여자 전부가 줄을 잡아도 좋다고 호기롭게 선언했다.

“좋수다, 삼촌들 문밖 땀범서, 우리가 짧음으로 이기쿠다!”
여자편 주장 애자어머님이 다짐을 했다.

“나중에 판말 허지 말라이. 우린 다 일당백 허는 예칭 [女丁]들이여.”

조선시대 제주에는 여정(여자 병정)이 있었다. 그 기백을 물려받았노라는 소리에 종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십으로 우리 이겨 범서! 우리가 누구꽈, 그 예칭들 아들이라마썸.”

오늘 심판을 보기로 한 강 훈장이 팽과리를 높이 쳐들고 팽팽 두들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아, 줄들 잡읍써! 여기 솜으로 금을 굿어 놓았수다. 줄 중심엔 빨간 형겅을 매어 뒀수다. 빨간 줄이 이 선을 넘어오게 땡기민 이기는 겨우다. 다덜 알았수가?”

옛! 하는 대답소리가 삼거리를 울렸다.

“자, 시작!”

강 훈장은 다시 팽과리를 쳤다. 한쪽에선 어엿싸 어엿싸! 저쪽에선 으싸 으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어디서 우쭐우쭐한 꿈추가 나타나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며 웃기는 바람에 그리로 시선이 모아지면서 줄이 느슨했다.

“저저 기태아방 아니가!”

“맞수다, 한잔 현 모양이우다.”

이때 애자어머님이 악을 바락 썼다.

“예칭넌네들, 줄 땡깁서!!!”

뜻밖에 나타나 익살을 떠는 기태아방에게 시선을 빼앗겨 손아귀 힘도 느슨해졌는지 남자편 줄이 여자편으로 확 끌려왔다.

심판의 팽과리가 팽팽팽 연속으로 울렸다.

“예칭들 승리!”



등돌들기

추석명절 날, 팽나무 삼거리에서 줄다리기 시합이 여자들의 승리로 끝나자 바로 이어서 등돌 들기 시합이 벌어졌다.

등돌은 계란 형태의 등글과 매끄러운 자연석으로 냇가에서 구해다가 양옆에 모목하게 손잡이를 인공으로 만들어 오가는 사람이 많은 마을 중심에 놓아두었다. 젊은이들은 오며 가며 이것을 들어올리는 연습을 했다. 1단계는 무릎, 2단계는 배, 3단계는 가슴까지 들어 올렸다.

등돌 들기는 남자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통과 의례였다. 2단계인 배까지 들어 올리면 성인이 됐다는 인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어른 품삯을 받게 되고 장가갈 자격도堂堂하게 취득했다. 정순이네 마을에는 등돌 들기 4대천왕이 있다. 정순이네 큰 외삼촌 고춘식, 창부아방, 정순이아방, 길호아방, 이렇게 네 사나이는 실력이 막상막하로 아직도 아들이 세운 기록에 도전하는 신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4대천왕은 등돌을 가슴팍까지 들어 올려 배구공을 던지듯 가볍게 5미터 이상을 던지는 괴력의 사나이들이다.

이 등돌 들기 시합에는 아이들도 모여들어 구경했다. 망오름에 가서 쇠촛을 베던 창부네 식구도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왔다. 정순이도 할머니와 자리를 잡았다. 승철이는 일찌감치 단팥 친구들과 모여 앉아 오늘은 누가 최고기록을 세울 것인가를 점치고 있었다.

등돌 들기 시합 진행은 청년회장 종출이가 맡았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을 4대천왕 등장ですよ!”

와아, 함성이 일었다.

“이 네 분은 우리 마을이 자랑하는 장사들입니다. 우열을 도저히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최고입니다. 여기 이웃 마을에서 구경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언제든지 도전장을 보내 주십시오, 기꺼이 달려가서 이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용, 제발 조용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4대천왕은 우리 마을의 자존심을 걸고 다른 마을과의 경기에서는 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고 마을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정순이아방, 길호아방, 정순이외삼촌, 창부아방 순서로 됐다.

먼저 정순이아방이 나왔다.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 문지르고는 등돌 손잡이에 손을 넣어 잡자마자 얹히는 기합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배까지 들어 올렸다. 이어 숨을 한번 내쉬고 몇 걸음 걸어가 가슴에까지 들어 올린 후 손으로 등돌을 자보 휘익 앞으로 내던졌다. 다들 숨을 죽이고 보다가 와야, 함성을 내질렀다. 청년 회원 두 명이 뛰어가 길이를 재었다. “6미터!”

와와 하는 함성과 박수갈채가 팡나무 삼거리를 흔들었다. 이런 식으로 길호아방도 6미터, 정순이외삼촌은 5.5미터, 창부아방이 6미터의 기록을 세웠다. 4대천왕이 시범을 보일 때마다 함성이 치솟고 박수가 쏟아졌다. 이웃 마을에서 구경 왔던 사람들도 모두 혀를 내둘렀다.

“이거 하늘이 너무 불공평하네. 한 마을에 천하장사를 네 명이나 주다니!”

정순이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부터 궁금해 오던 걸 물었다.

“할머니, 나 그전부터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수다.”

“골아 보라, 무시것고?”

“우리 동네 진짜 힘장사는 여자였다는 말이 진짜우파?”

할머니가 발을 멈추고 정순이를 보며 말했다.

“진짜고 말고.”

“누게우파? 경허고 무사 다털 쉬쉬 햄수가?”

“여자라부난 경험시네. 에허~, 여자는 너무 잘나면 그게 흉이랴져.”

“그 여자 힘장사는 누게우파?”

“길호네 할망이여, 시집 완 어두운 새벽이 물 질레 가는디 발에 등돌이 걸리난 우꼇 들런 저 밧더레 던져 부렸덴 해라. 마을에선 등돌 잃어버린 좇지 못헤 허단 밧 하나 넘어간 디 떨어전 있거든. 이걸 누게가 여기 가져다 놓아신고 마을이 시끄러웠주. 나중에 시아방이 메느리가 힘장사인걸 눈치채 연 조용히 불런 골았덴 해라. 아무도 모르게 밤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는 힘장랑 허지 말렌 주의를 단단히 쫘덴.”

“길호아버지가 힘장사인 게 할망한테 물려받은 거구나!”

“쉬잇, 그런 건 속으로만 알앙 잇이라.”

※ 해당 원고는 서귀포문화원에서 발간한 [그리운 제주 풍경 100(김순이 글, 김동연 그림)]에 실린 제주의 추석 풍경을 담았습니다.



만두와 오름

글 김민정 / 여행작가

한두 달에 한 번 친정 나들이를 한다. 제주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50분, 김해공항에서 집 근처 정류장까지 리무진 버스로 1시간 10분, 거기서 차로 또 15분.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떨 때는 중간에 약속을 잡기도 한다. 목 좀 축이고 가면 더 낫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항과 집 사이에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시내에서 엄마를 먼저 만나는 일이다.

루틴이란 표현을 쓴 것은 '몇 시? 언제? 어디서?'와 같이 약속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으레 서로가 알고 있는 까닭이다. 오랜만에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돌아보다가 엄마 머리에 모자를 얹어 보기도 하고 서점에 들러 책을 들춰보기도 하며 평범한 모녀 데이트를 즐긴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미뤄둔 수다를 떨기도 한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둘이서 꼭 하는 일이 있다.

샤오롱바오를 먹는 일이다.

작은 대나무 찜통에 담겨 나와, 살짝 깨물어 후루룩 육즙을 마신 후 생강을 올려 초간장에 찍어 먹는 중국식 만두. 입은 즐겁고 위는 부담스럽지 않아 근사한 식사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중간중간 대화를 섞게 하는 적당한 속도도 마음에 든다. 그런데 엄마는 나 없이도 종종 그 식당엘 가는가 보다. 제주로 돌아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메신저로 익숙한 그림이 날아들었다. 그 테이블, 그 찜통, 그 만두. 엄마는 혼자서 사진 속 샤오롱바오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맛을 음미했을 테고 불현듯

외할아버지 생각을 했던가 보다.

제주가 고향인 엄마는 어릴 적 지금의 동문로터리 근처에 살았는데 칠남매의 막내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쌀 한 톨 귀한 시절이었지만 삼촌들은 하나 갖고 나눠 먹던 바나나도 꽤로 가졌고 어진이란 친구네가 하는 중국집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만두를 먹었던단다.

샤오롱바오를 먹다가 50년 전 제주의 중국집을 떠올린 엄마는 잠시 정겨웠다고, 이어서 툭 하나를 더 보내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엄마가 마주 앉아 속닥속닥 나눈 음식이 '만두'였다면, 엄마랑 내가 오직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에는 '샤오롱바오'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보니 만두는 유독 가족과 관련이 깊은 음식 같다. 평소엔 주로 냉동된 걸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휙 돌려먹는 손쉬운 간식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만 돌아보니 이런 날도 있었다. 큰 집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소담소담 만두를 빚어 먹던 기억. 밀가루를 훌훌 뿌려놓은 커다란 쟁반 위로 만두가 하나둘 채



새별오름 정상

워지기 전에, 송편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던 거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추석이었을 거다. 쟁반이 짝 차면 큰엄마는 꼬응, 일어나 어디론가 쟁반을 날랐다. 이후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날 저녁 우린 만둣국과 송편을 먹었겠지.

하지만 다음 해에도 다다음 해에도 어째선지 추석은 물론 설에도 만두는 건너뛰었다. 그러니 만두피를 손바닥에 올리고 소를 야무지게 넣고 가장자리에 물을 묻힌 뒤 엄지와 검지로 꼭꼭 눌러 주름을 잡던 일은 아련한 옛일이지만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상상으로 만두를 백 개는 빚었다.

올 추석엔 진짜로 만두를 빚어볼까 싶다.

내가 결혼을 하면서 명절은 우리 식구만 지내게 됐으니 많이 할 것도 없다. 작은 상 하나 앞에 펴두고 다 같이 머리 디밀고 앉아 곰지락곰지락 만드는 거다. 어차피 두고두고 남는 건 만두가 아니라 그 시간일 테니까. 그러고는 대나무 찜통 대신 간이 도시락에 만두를 올망졸망 넣어서는 역새가 아름다운 오름으로 향하는 거다. 따라비, 백약이, 아끈다랑쉬... 어디라도 좋

다. 풍경을 벗 삼아 걷다 보면 명절 음식으로 더부룩한 속도, 홀로 치열했던 일상도 가족 품에서 해실바실 풀어질 것이므로.

만두 얘기가 퍽- 길어졌다. 샤오롱바오는 덩섬의 한 종류인데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 있단다. 올 추석엔 덩섬 대신 우리네 만두로 모두의 마음에 시간

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을 점 하나씩을 새겼으면 하고 바라는 가을이다.



2009년 서귀포칼호텔,
2019년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 김성진 기자 / 제주의 소리 논설주간, 상임이사

바닷물이 철썹철썹
파도치는 서귀포 금(은)비늘이
반짝반짝
물에 뜨는 서귀포 자갯돌이
철썹철썹
물에 젖는 서귀포

일제강점기 말부터 전국을 풍미한 노래 〈서귀포 칠십리〉 각 절(節)의 첫 소절들이다. 노랫말은 금지곡·개사곡·해금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변천을 거듭한 듯 했다. 컴퓨터 마우스를 옮길 때마다 각 소절의 배치 순서, 시점, 단어 등에서 미세한 차이점이 발견됐다.

곰긴 고왔던 모양이다. 금비늘이면 어떨고 은비늘이면 또 어떨가. 어디 이 뿐이라. 서귀포 해안은 곳곳에 기암절벽과 폭포, 울망출망한 섬들이 어우러진 한폭의 동양화 그 자체다. 말





서귀포 KAL 호텔 전경



토끼섬

그대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오늘날 서귀포를 상징하는 칠십리는 애초 거리 개념이었다. 조선시대 표선면 성읍리에 있었던 정의현성의 관문에서 방어 유적인 서귀진(鎭)까지가 70여리라는 것이다. 그랬던게 1930년대 시인이자 작사가인 조명암과 작곡가 박시춘, 가수 남인수와 만나 노래로 환생했다. 금지목록에서 풀린 1993년 이후엔 제주출신 재일동포들에게 향수를 달래주는 최고의 노래로 자리잡으면서 어엿이 서귀포를 지칭하는 낱말이 됐다.

칠십리를 '아름다운 해안'의 대명사로 친다면, 칠십리는 서귀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서쪽으로도 빼어난 풍경이 쉼 없이 펼쳐진다.

주관의 차이가 있겠으나, 압권은 올레 6코스 중간 지점 쫘뽕이는 검은여 해안 일대다. 서쪽으로 소정방, 정방폭포가 이어지고 앞 바다에는 섯섬과 문섬이 고즈넉하게 떠 있다. 가물가물하지만, 9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된다. 난 이 곳에서 숨이 멎

을 듯 풍경에 매료됐던 순간이 있었다.

그 땐 몰랐다. 오롯이 만끽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알았다. 검은여 해안에 위치한 한 호텔이 부지 내 남쪽 해안을 올레꾼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일부 구간을 막아버린 것이다. 올레꾼들은 해안 절경을 뒤로하고 멀찌감치 돌아가야 했다. 2009년말의 일이다. 문제의 업체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소유의 서귀포칼호텔이었다.

구간 폐쇄는 고(故)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시였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올레 6코스가 개장한 것은 2007년 10월. 호텔 해안 개방은 당시 대한항공과 (사)제주올레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었다. 더구나 호텔 측은 마케팅 수단으로 올레길을 적극 홍보해오던 차였다. 2009년 상반기에는 '1사 1올레 마을' 결연까지 체결했다.

전말이 알려진 건 2018년 4월(한진그룹 이명희 '갑질' 제주올레 길도 막았다-2018.4.27 제주의소리)이었다. 한진 일가의

1



2



1 가파도 보리밭 / 2 송악산 전경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던 때였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한달쯤 뒤엔 호텔이 수십년동안 도로와 공유수면 등을 무단 점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여론의 뭇매를 맞던 호텔측은 그 해 7월, 9년동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 수 밖에 없었다.

자신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경관 공유’를 거부한 대기업의 행태는 제주도민에게 씹쓸함을 안겨줬다. 절경이라면 주상절리로 유명한 대포동 지샹개 해안도 빼놓을 수 없다. 중문관광단지 동쪽에 자리한 지샹개는 도내 주상절리 중 가장 규모

가 크다. 주상절리는 화산폭발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바닷가로 흘러와 물과 만나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생성된 육각형 또는 사각형 형태의 기둥을 말한다. 이곳은 기둥 하나의 높이가 30~40m에 달하며, 그 기둥들이 만든 해안의 길이가 1km에 이른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신이 빛은 최고의 비경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다.

과거 서귀포칼호텔이 해안을 ‘인위적으로’ 봉쇄했다면, 이곳은 ‘건물’ 자체가 해안 경관을 가로막을 판이다. 공공로게도 둘다 호텔이 걸려있다. 지샹개는 호텔 건축에 따른 경관 사유화 논란으로 뜨겁다. 뜨겁다는 의미에서는 일종의 핫 플레이스다.



중문·대포 주상절리 전경

논란의 중심에는 이번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부영그룹이 있다. 논란은 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주)이 2016년 2월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객실 1380실의 호텔 4개동(2, 3, 4, 5 호텔)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부영은 이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서쪽의 호텔을 사들여 '제주부영호텔 &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이었다.

호텔 4개동의 위치는 ICC제주 동쪽에서 아프리카 박물관 사이로 약 1km에 달한다. 해안과의 거리는 불

과 100~150m, 건축고도는 지상 9층까지 지을 수 있는 35m. 원래 이 일대 건축고도는 최고 5층, 20m였다. 고도완화 특혜 시비가 일었다.

도민사회에선 이대로라면 수려한 해안을 다 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한국관광공사(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 등을 거쳐 제주도는 그해 12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뒤늦게나마 민심을 받은 셈이 됐다.

부영 측은 두 건의 소송으로 대응했으나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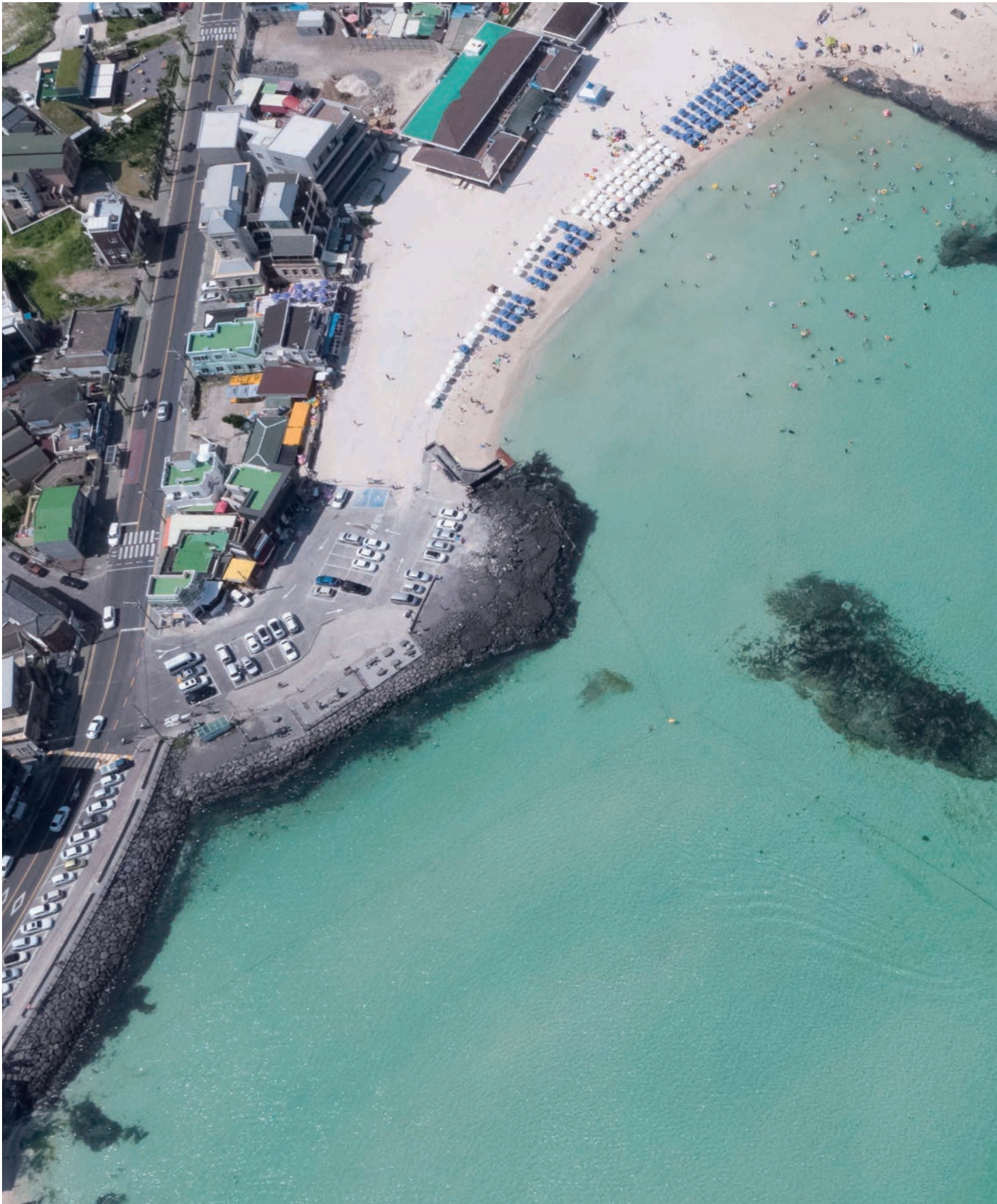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과 도민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적 가치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더라도 제주도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는 환경공익에 대한 보호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받지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행정당국을 뜨겁하게 할 정도의 전향적인 내용이었다. '보물섬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판결 직후 환경단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제주도에겐 주상절리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추진을 요구했다.

하늘이 내린 경관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 기여'를 기업이념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부영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제주의 소리





경관은 공공재, 더 이상 사유화 허용해선 안 돼

경관은 공공재, 더 이상 사유화 허용해선 안 돼

글 김해창 / 경성대 교수

‘서귀포 칠십리’에 들어서려던
부영호텔의 건축허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보물섬 제주’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제주의 소리’(2019.7.12)에 따르면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더라도 환경적 가치와 주민들이 권리를 고려해 제주도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2,3,4,5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법원은 부영호텔 건설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허가 역시 단지 개발사업 내용에 구속되고 그 계획



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건축물의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경미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인 경우, 추가적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는 환경공익에 대한 보호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소리’(2019.7.17)는 또한 ‘경관 사유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설을 내놓았는데 2009년말 대한항공 소유의 서귀포칼호텔이 2007년에 개장한 서귀포 칠십리길의 울레 6코스과 공유수면 등을 폐쇄하고 무단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9년간 닫혔던 문을 열었다고 한다. 과거 서귀포칼호텔이 해안을 ‘인위적으로’ 봉쇄했다면, 부영호텔은 ‘건물’ 자체가 해안 경관을 가로막을 판이었다. 하늘이 내린 경관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부영호텔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경의 공공성을 중시한

것으로 ‘토건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잘 된 일이다. 부산시에 오래 살아온 필자로서는 부산의 해안경관이 망가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2000년대 중반 이후 10년여간 전임 부산시장 재임기간에 도시의 난개발이 가속화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108층)으로 지금은 부패의 온상이 된 ‘엘시티사업’이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보장을 위해 주거시설을 허용해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한 반면 교통 환경 난개발로 인한 고통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가시켰다.

“고급 아파트에서만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게 돼요. 해운대해수욕장이 초고층건물에 둘러싸이는 건 원치 않아요.” 2011년 4월 ‘해운대해수욕장 살리기 주민모임’ 회원들이 ‘108층 건축승인 반대’ 풋말을 들고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난개발은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주변 용호만매립지와 삼익비치아파트를 비롯한 10개의 아파트 단지에 55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허가가 나는 ‘도미노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여야가 바뀐 부산시 민정7기 시정이 최근 도시경관을



금악봉에서 본 전경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국제신문(2019.7.17)은 ‘도시 경관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시 방침 주목한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부산시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기준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번 용역의 대상 구역은 사실상 부산 전역이며 시가지 유형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라고 한다.

일본의 우자와 히로우미는 『사회적 공통자본』(2001)에서 사회적 공통자본을 ‘일국 또는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뛰어난 문화를 전개해,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사회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산림, 대기, 수도, 교육, 보도, 공원, 병원 등 산업이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을 예를 들었다. 그는 사회적 공통자본을 크게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 ‘제도자본’으로 나누고, 이를 시장원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관은 지역의 역사나 문화의 축적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지역 경관의 보존은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외부인의 눈에는 그 지역의 매력이 된다. 따라서 지역 경관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그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경관 보전 및 조성을 위해 제주도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경관을 보호하고 조성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고 경관조성계획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 경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지역에 경관 조성 전문가와 행정인력을 키우고, 주민과 사업자의 경관 보전인식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와 아울러 산악이나 오름, 평야, 습지, 협곡, 폭포, 하천, 해안, 곳, 암석동굴, 식물, 화산 기상현상 등 제주도의 경관자원을 전수 조사해, 경관자원의 분포, 경관자원의 상황(형상, 규모, 색조 등), 자연특성(볼거리가 되는 시기) 등을 파악해 경관자원으로 제대로 관리하는 일이다. 주민과 사업자, 행정이 하나가 돼 제주도다운 경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더불어 열어가는 길임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 실현”

제주도교육청 IB한국어화 협력각서 체결..."공교육 도입 발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는 지난 7월 12일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각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과정인 IB DP에서 이수해야 할 영역은 9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분야, 과학분야, 예술분야, 지식론, 소논문, 창의체험활동 등이다. 이 9개의 영역 중 7가지는 한국어로 평가 받고, 영어 외 한 과목은 영어로 평가받게 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DP 과정을 운영한 후 2023년 11월에 처음으로 IB 외부평가를 치르고,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운영 학교 교원은 IB 워크숍에 참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어가 가능한 교사들을 연수강사로 훈련시키기로 하고, 연수강사로 전문성이 검증된 교원들 중에 채점관을 선발해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대구교육청 외에 추후 타 시도 교육청도 IB 한국어화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읍면지역 고등학교 한 곳을 IB도입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2022년부터 IB교육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C 체결에 앞서 제주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과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IBO와 한국어화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4월 17일에는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협약식'을 통해 IB 한국어화 추진을 공식화 했고, 3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협약 체결을 이뤘다. 그간 학교 단위나 국가 단위의 계약을 맺어 온 IBO가 교육청 단위에서 협력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이석문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다.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IB교육과정, 제주 교육현실과 맞지 않아"

제주교총은 지난 4월 25일 "IB교육은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지역의 교육현실에 알맞지 않은 교육과정이며, 학교 간 교육 불평등과 교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한국어 IB교육 프로그램 전격 도입에 따른 입장' 성명을 내고 "IB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인정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 특히 제주지역의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과 IBDP와의 관계, 지역과 학생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올해 2년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IB가 과연 읍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될 것인지, 교육감의 치적을 위해 읍면지역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정 읍면지역 고등학교 1개교를 위해 과도한 예산이 투자된다. IB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은 물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 학교에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정 학교 혹은 특정 학급 단위의 소수의 학생에게 과연 국가 교육과정이 아닌 외래 수용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제주교총은 "IB를 가르칠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처럼 과연 수준 높은 IB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과연 연수과정만으로 IB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 국가교육과정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학교 현장의 자연스런 요구에 의한 교육정책이 아닌, 관에서 주도한 교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교육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보았다"며 "교육현실을 무시해 교육도백의 무리한 욕심으로 교육과정의 일관성 연속성이 결여되고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으로 시행하는 'IB교육 프로그램'이라면 그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 평가교육과정(IB)’ 8년차 국제학교 가보니

제주영어교육도시 ‘브랜섬 홀 아시아’의 토론·과정중심 수업 제주도교육청 ‘IB 고등과정 우선 도입’ 방침엔 일부 우려도

글 오미란 기자 / 뉴스1 제주지역본부

지난 5월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 BHA)’.

개교와 함께 8년째 초·중·고등교육 전 과정을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로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 교실 곳곳에서는 대부분 자유로운 분위기 속 조별 토론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IB 가이드라인 범주 안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교육자료를 참고하며 수업에 임했다. 교육자료는 기본 교재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전자기기 등 형태가 다양했다.

수업은 학생들끼리 협력하며 공동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식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지켜보며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모든 과정은 모두 영어로만 진행됐다.

BHA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 학생 기준으로 하루에 4과목(국어·수학·영어 또는 영문학·과학·한국사 등) 수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담임교사 소그룹 멘토링, 자율·보충수업, C.A.S.E(Creativity · Action · Service · Enrichment의 약자)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BHA에 재학 중인 만 3~11세 학생들은 초등교육 과정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 만 11~16세 학생들은 중등교육 과정인 MYP(Middle Years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 BHA)'의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영문학 수업을 받고 있다





Programme), 만 16~19세 학생들은 고등교육 과정인 DP(Diploma Programme)를 밟고 있다.

졸업장은 DP를 끝낸 뒤 외부 국제공인기관이 주관한 평가 절차까지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이 평가는 논·서술형으로 진행된다.

졸업생들은 해외는 물론, 국내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다. 국어와 한국사를 이수했기 때문에 국내 고졸 학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IB는 150여 개국 5000여 개 학교에 도입된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으로, BH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토론·과정 중심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최근 IBO와 IB DP를 한글로 번역해 이를 우리나라 공교육에 도입하는 내용의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IB DP를 모델로 한 선진 평가 모형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주도교육청은 올 연말쯤 읍·면 고등학교 1곳을 IB 학교로 지정해 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고2)부터 한글판 IB를 본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IB를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수시 전형으로 국내·외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브랜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BHA)'의 한 교실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미술 수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BHA 관계자들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했다.

신디 락(Cinde Lock) BHA 총교장은 “초·중등 교육과정은 아닌 고등 교육과정에만 IB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유기성 면에서 이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IB DP를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최화영 BHA 교사는 “원어민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 영어 자체를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IB를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제학교보다 교육환경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

가 시작됐다”며 한글판 IB DP 공교육 도입 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1개의 질문에 1개의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1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그의 큰 그림이다.

현재 교원단체들이 국내 교육과정과의 충돌, 전문 교원 양성·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의 IB DP 공교육 도입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이 교육감의 새로운 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 제주지역본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브랜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 BHA)'의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노트북과 필기구 등을 들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 제주 속으로 ●



하효를 견다

글 한원표 작가 / 사진 픽스스튜디오



늦여름의 어느 날, 가을의 어느 부분과 맞닿아 있는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다.
가슴이 무엇인지 모를 것으로 부풀어 오르는 날에는 어디든 떠나는 것이 생의 한 부분을 채우는 유익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주의 그 어디든 좋을 테지만, 오늘은 서귀포의 한 자락을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도를 펼치고 제주시의 끝자락으로 손가락을 내달리니 닿아있는 곳은 하효. 바다와 쇠소깍을 끼고 있는 곳이라면 오늘의 목적지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테우와 카약을 즐기고 있는 쇠소깍 풍경



- 1 쇠소깍에서 테우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
- 2 하효 경로당
- 3 강익현 하효마을회 회장
- 4 하효살롱에서 만드는 감귤과즐
- 5 김미형 하효마을회 부녀회장
- 6 / 7 하효살롱 내 · 외부 전경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가장 빠르고 유쾌한 경로는 5.16도로이다.

용이 느긋하게 산책을 한듯한 구불구불한 도로를 타고 멋들어진 숲 터널과 수목림들을 즐기며 한 시간 정도 이동하다 보면 목적지인 하효에 다다를 수 있다. 서귀포에 도착하기 전쯤 꼭 뒤를 돌아 한라산을 보기를 추천한다. 제주시에서와는 다른 멋들어진 한라 산을 볼 수 있다!

마을에 도착해서 하효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누군가에게 물으면 열에 아홉은 ‘쇠소깍’을 안내해 줄 것이다. 해송이 도로를 품고 있는 소로를 따라가면 하천의 하구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쇠소깍’에 도착한다. 소가 누워있는 모양새에서 이름이 붙여진 하구의 풍 광은 아직은 모든 게 신기한 아이들에서부터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어른들까지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진 풍경이 펼쳐진다.

매포소에서 대기 중에 잠시 만난 마을회장님과 몇 마디 나누다 보니 마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쇠소깍은 마을의 보물이주. 풍경도 풍경이지만 체험으로 친 환경 조각배와, 예전 제주의 낚시배인 테우를 복원해 뒤서 이용할 수 이시매. 마을 사람들이 푹푹 뭍치고 노력해서 지금의 하효와 쇠소깍이 이렇게 좋은 곳이 되었주. 저 옆에 강통열차도 있고, 배고파진 시간이면 호пп 걸어강 하효살롱에서 부녀회원들이 만들어주는 전통식단도 맛보고, 체험도 할 수 이서. 아! 겨울엔 감귤 맛보는 것도 잊지 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후 쇠소깍을 끼고 조성된 아기자기한 산책로를 걸으며 풍경을 눈에 담다가 다음 목적지로 마을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하효살롱'을 둘러보기로 했다. 쇠소깍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곳이다.

안으로 들어서니 고우신 부녀회장님께서 웃으며 반겨주신다.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부와 체험장이 보인다. 메뉴에는 들었던 대로 제주 전통의 식단들이 정갈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저분 행진곡, 들삭한 상, 구시게 차려진, 베롱베롱 블루스, 정성스런 몸국 등의 듣기만 해도 재미있는 이름들이 눈길을 끈다.

아쉽게도 운영시간이 지나버려서 부녀회장님과의 대화와 맛있는 감귤과줄로 만족해야 했다.

“이곳은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산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요.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료라면 육지에서 생산되는 국내산만 사용하고 있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밀 중에 국내산은 1%밖에 되지 않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엄마들의 마음으로 만드는 만큼 좋은 재료와 건강함만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정성스레 손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라는 구시대적 통념을 부정



하고 “여자들이 모여 농촌을 살린다.”라는 신념으로 매일 이곳에 모여 정성을 쏟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가족에게 대접하듯 손님께 드리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체험으로 감귤타르트, 오메기떡, 풋굴칭, 과즐, 향초 만들기 등도 진행하고 있으니 시간 되실 때 꼭 참여해 보세요.”

과연 말씀 만으로도 고개가 고덕여지는 애정이 듬뿍 녹아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효살롱’을 뒤로하고 소담한 마을을 좀 더 산책하기로 하고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가는길마다 마을의 역사와 중요 부분에는 어김없이 비석들이 서있다. 하효마을회에서 마을의 중요 부분마다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하나하나 손수 세운 비석들이라고 한다.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니 마을 중심부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복합공간 계단참

에서 발을 쉬어가기로 한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마을 화장님이 추천해 준 하효의 명물 ‘다육이 풍경’이다. 평소 카페 수익금을 마을에 기부하여 선행을 이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곳인지 궁금하게 되었다.

잠시의 휴식을 뒤로하고 조금 더 걸어 ‘다육이 풍경’에 도착했다. 골목 어귀부터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현무암 돌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육이들은 웬만한 형용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서려있다. 원가에 홀린 듯 안으로 들어서니 동네 어르신들이 약주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구경 좀 해도 되냐고 여쭙보니 안쪽에서 이곳을 꾸려온 할아버님과 따님이 따스하게 맞아주신다.

“1979년부터 다육이를 심어서 30년이 넘었जू. 사람들은 바



8 카페 '다육이 풍경' 전경

9 40여 년간 다육이를 가꾸어 오신 김성주 씨와 따님 김영숙 씨

10 다육이 모종을 설명해주시고 있다



9



10

보같다 말했지만 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머니가 꽃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제주에는 사계절 꽃을 보기가 그리 쉽지 않았 항상 아쉬워 하셨주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슴에 너무 사무치는 그리움이 자리 잡아 부난 그 애달픔을 이 꽃같이 생긴 다육이들로 달래기 시작한거라.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심으멍 어머니 생각하당 보난 이렇게 사계절 다육이로 가득한 공간이 만들어 저서.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시멍 좋아 하 실테주."

투박해졌지만 애정이 서려있는 손가락 사이로 다육이 모종을 보여주시며 웃으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가슴 한 구석에 먹먹함 이 밀려왔다. 애정의 화원의 가운데서 따스한 기운이 듬뿍 듬뿍 느껴진다. 용월다육이를 키우셔서 용월 할아버지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와 요즘의 다육이가 건강에 좋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현무암 돌담에 해가 걸리기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따님과 할아버님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나서다 뭔가 아쉬워 뒤돌아보니 석양을 받은 다육이 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마을 초입으로 다시 돌아와 나무그늘 아래 서니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마을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는 요즘에 마을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단단히 여머가는 이곳은 나에게 많은 의미를 준듯하다.

풍경과, 사람과, 이야기.....

이 하루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마을을 걸었던 내 다리와, 풍경을 담았던 내 눈과, 따스함을 느꼈던 마음은 이 마을, 하효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따뜻한 사람들과 멋진 자연이 있는 하효는 낙원에 근접해 있는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함께 여행을 마무리 한다.





제주 서부지역 최대 전통 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글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 사진 픽스스튜디오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고 있는 대정오일 시장은 매달 끝자리 1일과 6일에 장이 서고 있다. 대정오일 시장은 모슬포 오일시장이라고도 하는데 6.25 전쟁 때부터 장이 열려 지금의 대정을 하모리에 자리를 잡은 역사 깊은 전통 오일 시장이다.



대정오일시장 전경



모슬포는 오리지널이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방어를 먹기 위해 모슬포항으로 자주 가고 있다. 제주 지역 전역에서 방어를 팔지만 이곳 모슬포에서 먹어야 오리지널을 먹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하지만 방어의 온갖 특수 부위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단골 횡집은 단골이라고 그렇게 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대정읍을 찾아오는 손님 모두에게 똑같은 구성으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니 역시 모슬포는 음식의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지역이란 생각이 든다. 식당들이 그러니 그 식재료를 파는 시장은 어떠할까. 늘 날짜를 놓쳐와보기 힘들었던 대정오일시장을 오늘 취재를 핑계로 구석구석 다녀보려 한다.

항구의 바다 내음이 가득한 시장

역시 대정오일시장은 근처 모슬포항에서 갓 잡아온 생선들과 해산물로 좌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두툽한 갈치에 눈길이가 다가가도 빛깔 좋은 생물 옥돔 넣고 미역국 끓여 먹을 생각이 머릿속에서 휙휙 지나가면서 이곳만큼 물 좋은 생선을 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는 벌써부터 아버님들의 건배사로 요란하다. 순대 한 접시와 막걸리 한 잔, 늘상 보아왔던 풍경이라 정겹다. '삼춘~ 사진 찍어드리쿠다. 책에 실릴까 마심'

한마디에 포즈도 잡아주시고 막걸리 한 잔에 순대도 입에 넣어 주신다.

제주도의 시장이 다 그러하듯 이곳 대정오일시장도 없는 게 없는 시장이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대정읍지역의 마늘 또한 유명해서 봄철 수확철이 되면 전국에서 햇마늘을 사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 계속적인 주변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시장 내 불편한 사항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한다. 일례로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했을 때 바로 먹고 싶어 하는 어린이 손님들을 위해 시장 중앙에 급수대를 설치했다고 한다. 손도 씻고 과일도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놓으니 호응도가 좋다고 한다.

이렇듯 대정오일시장은 단순히 상인들의 수익에만 치중한 시장 운영보다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한 배려 깊은 서비스 덕분에 대정읍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시장을 나오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걸어가 보자

시장에서 나오면 산이물 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공원에서 잠시 쉬다가 모슬포항까지 둘러보면 좋다. 항구 주변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이 있으니 식사를 해도 좋고 시간이 된다면 조금 멀지만 올레길 10코스를 거꾸로 거슬러 가다 보면 송악산까지 갈 수 있다.

송악산에서 바라보는 사계 앞바다의 풍경은 듣던 대로 제주의 비경 중에 비경일 듯하다. 형제섬 너머로 물들어 가는 노을이 꽤 아름다워 사람을 그 자리에 한참이나 붙들어 놓는다. 대정오일시장에 왔는데 몸과 마음까지 힐링하고 갈 수 있었던 하루였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슬포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다.

- 1 시장 내 순대 집에서 즐거운 추억
- 2 치명적 입맛 유혹, 호떡
- 3 은빛 자태를 뽐내는 갈치
- 4 갈치를 손질하는 상인
- 5 전국 최고의 대정마늘

제주의 오페라 문화, 그 서막을 열다

오페라 인 제주

OPERA

글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 사진 픽스스튜디오

OPERA

오페라로 이야기하는 제주

유럽에서 시작된 오페라는 그리스의 신화를 소재로 16세기 이탈리아의 한 백작 가문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인물 때문이다. 제주 역시 그리스 못지않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섬이다. 최근 들어 여러 방면의 문화 예술에 활용되면서 제주의 콘텐츠가 그 가치를 빛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오페라'라는 종합예술 무대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민·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다. 바로 오능희 단장과 강용덕 이사장이다. 이들은 제주에서의 오페라 부흥을 꿈꾸고 있는 젊은 음악가이자 사업가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페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제주오페라연구소를 운영하며 제주도 내 무대에 작품 공연을 꾸준히 했던 오능희 단장과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해왔던 강용덕 이사장이 의기투합하여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를 출범시키면서 창작 오페라 '해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제주 지역의 음악인들을 위한 '오페라인 제주 스튜디오'를 얼마 전 완공했다. 스튜디오는 작품 연습과 도민들을 위한 오페라 아카데미 운영 등 여러 활용 방안 계획을 갖고 있다. 11월 공연 예정인 창작 오페라 '해녀' 연습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배우와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제주의 오페라, 곧 그 서막이 올라갈 날을 기대한다.

IN JEJU

IN JEJU



- 1 오페라 나비부인
- 2 오페라 인 제주 스튜디오에서 연습 중인 모습

interview

제주의 이야기를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오페라인제주는 어떤 계기로 창단을 하게 되었는지요?

강용택 이사장 제주의 무궁무진한 음악적 콘텐츠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았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수많은 제주의 신화 이야기,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음악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콘텐츠를 활용한 오페라 무대가 없는 걸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 그전부터 제주지역의 오페라 문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오셨던 오능희 단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서로 뜻이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걸 느끼고 이번에 본격적인 제주 오페라의 예술 문화 부흥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능희 단장님께서 그동안 제주오페라연구소를 통해 제주의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오페라는 도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해서 늘 아쉬웠던 장르인데요. 많은 제주도민들이 오페라 공연을 즐길 수 있게 그동안의 공연과 활동에서 차별점을 두신 점이 있으신지요?

오능희 단장 제주의 콘텐츠를 창작 오페라로 제작해서 서울의 중앙 무대, 나아가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 무대에서 공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자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유명 오페라 작품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목적이 가장 컸죠. 이제 저희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 제주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작한 창작 오페라의 영역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오능희 단장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창작 오페라 ‘해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능희 단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구요.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여인의 다음 세대들이 해녀라는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직업 성찰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해녀라는 유산을 어떻게 지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드라마틱 한 작품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페라인제주가 도내,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제주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오페라단이 되길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오페라인제주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용덕 이사장)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음악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페라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음악인들과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제주의 음악 산업에 전념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오능희 단장)덧붙이자면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낮에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둘러보고 밤에는 전용 상설 극장에서 제주의 창작 오페라를 관람하는 그런 제주의 관광산업과 음악 산업의 융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제주도의 모습 저희 오페라인 제주가 만들어 나가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3



4

3 오페라 카르멘

4 오페라인 제주 스튜디오

오페라로 담아내다

강용덕 이사장

제주의 노포(老鋪)를 찾아서 송림반점

老鋪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있는 가게

글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제주시 서문통,
84로보트태권V와 스페이스간담V를 동시상영했던 현대극장, 만화영화를 보고 나오면 먹곤 했던 송림반점의 자장면이 있었던 서문통은 그 당시 어린이들의 핫플레이스였다. 지금은 현대극장도 철거되고 골목 구석구석 많은 것들이 바뀐 풍경이 되어버렸지만 송림반점은 이만큼이나 흘러버린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 그 자리를 웅골차게 지키고 있다.



일러스트 아끼중



1 송림반점의 시그니처 메뉴 볶음밥 2 달큰 짬잘 간자장 3 송림반점 사장님

엄마는 영화 보고 나서 먹으라고 자장면 값 500원을 더 주시곤 했다. 하지만 내겐 자장면보다 플라모델 장난감이 더 갖고 싶었으므로 배고픔 따위 과감히 던져버리고 문방구로 가서 장난감을 사버린다. 물론 엄마에겐 자장면 먹고 왔다고 해야 했다. 그렇다고 매번 장난감을 살 순 없으니 송림반점으로 가서 친구들과 자장면을 먹고 온 날도 많이 있었다.

그때 송림반점에서 먹었던 자장면 맛이 지금 내 자장면 맛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취재를 위해 송림반점으로 발걸음을 향하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드는 이유는 무얼까. 아마 그때 엄마가 자장면 사 먹으라고 준 돈으로 장난감을 사버려서 그랬을 거다.

가게 문을 열 때 나는 "드르륵"소리, 오랜만이다. 동시에 어릴 적 그때의 사장님도 오랜만에 뵈는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 이후로 가끔 몇 번... 빛바랜 간판만큼이나 가게 내부도 옛 모습을 꽤 간직하고 있었다.

어릴 때 와보고 오랜만에 찾아왔다고 말씀드리니 나 같은 단골이 많다고 하신다. 그 단골들도 이제 다들 중년이 되었다고 하

니 과연 이 집의 역사가 오래되긴 했나 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때 화교 주인분이 처음 영업을 시작했고 그 후 주인이 몇 번 바뀌고 나서 1979년에 인수하여 줄곧 운영을 하셨다고 한다. 햇수로만 보면 70년 가까이 되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화요리 식당이다.

송림반점의 자장면도 맛있지만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볶음밥이다. 우선 보통 볶음밥의 두 배되는 양에서 놀란다.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까슬까슬한 볶음밥.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볶음밥의 화룡점정은 바로 계란 프라이. 완숙 계란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기름이 흥건한 커다란 욕에서 국자로 튀겨지듯 조리되는 계란 프라이... 그게 볶음밥의 계란 프라이다. 노른자 위로 흰자의 얇은 막이 덮여있고 갈색의 바삭한 테두리가 있는 계란 프라이가 내게 말을 한다.

'어서 숟가락을 들고 내 노른자를 터뜨려서 밥과 함께 먹어봐.' 그리움 때문일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이제는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고 싶은 이유는 무얼까.

'엄마 나 자장면 사 먹게 500원만 줘'



나의 발아쓰기, 고무신

글 김신자 / 시인, 제주어보전회 연구위원

그 옛날 ‘고무신’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신던 신발이 두 개가 이서났수다며. 히영혼 고무신과 거멍혼 고무신을 글메들이명 신영 텅젓주마썸. 우리 아방이 히영혼 고무신을 신영 나사민 “아, 오닐은 어디 웨방감신가? 동네 잔치칩이나 영장칩이 값구나게” 히명 나 속으로만 생각하여나십주. 경호난산지 히영혼 고무신은 구둑도 안 묻곡 어떻하당 떼 타가민 찍눌에서 멧 개 쏙 뽑아당 세답비누 박박 두어번 문데긴 다음 막 밀당보민 쿠쿨하여져나서마썸. 난양 두린 무심에도 아버지가 거멍혼 고무신을 신을 때 보단 히영혼 고무신을 신은 게 잘도 좋아라 해났수다. 판칙하게 신영 출렁나사민 아버지가 니게반뜰호곡 잘도 멧쳐보여서마썸. 겐디, 거멍혼 고무신은 느랑 밧디 호광 부멍 텅기난산지 벨로 뽀닥사니가 웃어나서양. 경호곡 어떻사 찢긴디사 역불 칼로 그차불지나 안혼 이상 잘도 툃툃툃 신발이라나십주. 으름에 고무신 신영 밧더레 가당보민 뽀이 발락 창 잘도 민죽겨려났수다게. 알론 바닥 따문이 땅알에 이신 존존혼 돌덜토 문느 째이 오곡양. 장마철엔 멘주기덜 잡아당 놔두민 절대 물도 안새고 툃툃툃 낭푼이 역할을 히엿주마썸.

나 두린 땀 고무신 혼 착 꺾영으네 다른 착에 끼왕 주동차 놀이를 히엿수다. 고무신 가는 찻질은 밧밧하게 보두라운 모살로 지어진 신작로나나서마썸. 고무신 주동차가 막 와려테기명 놈이 차엿더레 가가민 반바지가 문 느려강 또꼬망도 다 뽀려지곡 누렁혼코 질질 흘치명 해 지는 중 몰르게 놀당보민 서월 지냥 팽양까지 가났주마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뽀덜광 혼디 합창하여가민 통일이 멧산디, 무사 통일은 뽀여사하는 중 잘 몰라도 제게 제게 통일이 뽀여시민 히는 무음덜이 간절히여십주.

그 놀은 7슬 운동회가 돌아오는 김요일이엿수다.

흑골 간 보난 부제칩 톨 선희가 빈직빈직흔 분홍 운동화를 신언 탁 나타난거라마썸. 이견 또시 무신 휘 뚜룩흔 신발인고? 문딱덜 체암보는 운동화에 삼혹 년 일반 눈망탱이덜이 선희 발 아래로 모다젼수다. 가인 어명이 녀미 젊고 세련뵤어노난 옷도 막 곱닥 하게 입엿탱기고 머리카럭도 진진하게 질루와났주 마썸. 가다쟁이 추룩 머리카럭을 따 오기도 호곡양. 나추룩 정제웃인 벋덜은 머리에 니올라 쉬올라 볼침 웃이 비짜 나노난 곱앙 멋홉네까게. 바리깡으로 작 작 밀당 버치민 호썸 사름 닳은 벋덜은 도레미 머리로 밥사발 얹어놓은거추룩 쫄라나서마썸. 난 그 모 십을 보난 집이 간 우리 어명신디 운동화 사도렌 앙 작을 호엿수다. 경해도 우리 어명 77닥 웃이난 역 불 칼로 고무신을 막 으라반디 그차가명 헐게 맨들 안 놔두난 썰로 이레저레 꺾메연 히영현 반창코로 툄툄하게 부쩍 놔 둔거 아니우파? 그걸 뵤려보난 또 시 녀미 설루완 호교 안 가켄 막 올어가난 아부지가 호교 텅져오민 운동화를 사 주켄 홉디다. 다음날 아 칙이 일어난 보거들랑 새판칙흔 분홍 운동화가 나 머리맛디 지들리는거 아니우파? 녀미 아까완 신지도 못호고 혈카부텐 백장에 멧날 멧칠 곱정 놔 둔 것 닳아양. 요조금 아이덜사 빗난 구두광 운동화도 으라 개 신어텅기당 실프민 데껴불곡 흥쟁이나 호주마는 그 옛날이사 그런 꿈은 꾸들 못헛수다.

아부지가 돌아가신 후제사, 아부지가 무똥에 벋엿 놔 둔 고무신을 뵤리멍 가름도세기추룩 밖으로만 나 돌던 두린 막둥이 톨을 이제나 오카 저제나 오카 막 지들렷던 거 닳수다. 구똥 일어가민 아부지추룩 송 텅덜 텅텅 털어내곡, 꺾으로 박박 밀어도 ㄴ시 안오는 아부질 그려와호명 죽앗던 나의 받아쓰기를 혼 번 읊어보쿠다.

한 짝은 어딜 갔나, 이 세상의 고무신 한 짝
잠깐 놓고 가신 발자국 찾아 왔는지
몇 주일 늦은 진달래 내 봄빛도 타고 있다.

치녀적 내 주소로 그 편지 또 왔을까
반질반질 닦아놓은 아버지 취기 속에
바다는 불배로 뜬다, 먼 섬의 기침 소리

지워라, 문지방에 쥐오줌뿔 생년월일
때 절은 벽지에서 아버지 걸어나온다
새벽녘 옥돔 몇 마리 금비늘로 퍼덕이는

끝자리 봄 끝자리 물고신 흰 민들레
홀씨 홀홀 떠다니는 습진 같은 저 비린내
빈 마당 한 채를 샀다, 혼자 큰 적막을 지킨다.
〈줄작 '큰 적막을 지키다' 전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의회는 지금

생활 속 조례

의정 모니터

청탁 금지법 Q&A

의정 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평등교육센터 설치하자" 양성평등조례 개정 추진

강성의 의원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주제발표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이 추진중이다. 전부개정안 초안에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및 양성평등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지난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성평등포럼(대표 김경미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전부개정안 초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초안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평등정책·젠더폭력예방인권·여성 및 가족친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자원, 성인지 교육, 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및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회기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제주성평등포럼 대표인 김경미 의원은 '앞으로 성평등 관련 주제로 콜로키움,

독서토론,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의정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제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만든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과 조례 제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또한 콜센터, 의료원 등 감정노동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이 공동주최하고,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울),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공동정책토론회가 8월 2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으로써 최근 제주도 차원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아 의원이 전체사회로 시작해 제주민생포럼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 : 실태, 조례, 정책, 사업', 제주민생경제포럼 회원인 고은실 의원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공선영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팀장, 곽동혁,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송기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팀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경숙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이 나섰다.

강성민·고은실 의원은 "제주지역 역시 120만덕콜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5개 사업장 증인 신문 조사

신화역사공원 등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증인 37명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8월 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주요 5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 계획은 지난 6월 27일과 7월 15일자로 예정되었으나, 현직 도지사 등 주요 핵심 증인 등의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8월 9일 열린 증인 신문 조사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은 총 43명이었으나,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등 주요 핵심증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는

총 37명(증인 35, 참고인 2)이 출석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 신문에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등이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원 지사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불출석함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본 뒤 과태료 부과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전체 22개 사업장 중에서 JDC가 시행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만 우선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인 지형도면 고시 미 이행에 따른 문제, 대규모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상생 방안 추진 미흡한 점,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시기 및 이유, 사업장 부지 내의 대규모의 농지 및 초지 전용의 요식적 행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수 역류 사태에 따른 ‘하수 관로 기술 진단 용역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목적’의 변경된 시기를 둘러싸고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시기와의 연관성이 보임에 따른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또한, 헬스케어타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첨단과학 기술단지 내 학교 신설 계획 부실의 문제,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상봉 위원장은 주요 5개 사업장 조사 활동을 해오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촉구했다. 그러나 끝내 이날 회의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특위에서 밝혀진 문제점, 그리고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주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또한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특위 조사활동이 첫발을 내 딛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아베정권 규탄 성명 발표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가 2일 2차 경제 침략을 감행했다.'면서, '130만 대·내외 제주도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전제한 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라며 일본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과거 전범국가로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겨내 더 강한 경제 대국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한 뒤, '제주도의회내 특별위원회 또는 T/F팀을 구성하고 일본 정부에 의한 세계무역 교란행위와 대한민국의 경제침략행위에 대해 굳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 의지를 밝혔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안무치하고 부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 지지않겠다고 결의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판결에 내정 간섭발언을 일삼고 경제보복하다 망신당하자 이제 안보를 들먹이고 있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또는 TF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 및 제주도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7월 29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장을 맡았던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이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영진 소장은 "정부가 제2공항 사업을 발표한 직후의 여론과 지금의 여론은 많이 달라졌다."라며, "처음엔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그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도민들의 가치관이 경제 개발에서 삶의 질과 자연환경 보존,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데 국토부가 이런 여론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반영해야 한다."라며, "2공항 기본계획

획 단계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을 좌장으로 5명의 토론자가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간의 토론시간과 플로어 질의응답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종료되었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대다수의 도민들께서는 제2공항의 찬성·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도민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번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탁 금지법 Q & A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Q 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6조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의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지도)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 수질관리 지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단속)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 미분류 게임물, 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원고,
의회에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소망 등을 담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클릭뉴스에 게재됩니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메일 : redlight17@korea.kr
전화 : 064-741-2285 (클릭뉴스 담당자)



원도심 재생, 기본은 주민이다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

원도심에 관해 행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도시재생이다. 침체한 지역을 다시 활력 넘치게 하자는 것으로 그 목표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원도심은 지금의 도시를 만든 원천이며,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도심의 확장과 주요한 기반시설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지역은 사람들의 활기가 떨어져 가고 있다. 도시라는 것이 성장과 쇠퇴 그리고 재생이라는 순환 고리를 생각하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도심들이 재생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의 방법에 있다. 원도심은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의 역사와 편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통한 생활의 작은 기반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최근의 원도심 재생은 개발처럼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주거를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도시재생 관계자들은 재생을 주변 환경을 새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도 벌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한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도시재생이냐는 것이다.

얼마전 국내 연수차 원도심 재생의 가장 성공사례로 홍보되고 있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느낀 점은 과연 이것이 도시재생인가의 의문이다.

개인적인 공간에 관광객이 모여들고, 내 생활과 주거지가 관광객에게 공개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도시재생인가?

주거중심 지역을 도시재생의 명목으로 관광지화 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곳 주민들은 이전보다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거환경은 정말 개선이 된 것인가?

문화해설사로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분들이 있고, 관광객을 위한 상가 및 편의시설, 이전에는 없던 많은 관광객이 있다. 그러나 이곳의 변화가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하는 주거의 공간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답은 주민과 관광객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다. 원도심 재생은 주민의 편리와 복리 그리고 삶의 질이 개선돼,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돼야 하는 것이다.

과하지만 주민소통과 주민참여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이것이다.

주민 없는 도시재생은 그나마 있는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원도심 자체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원도심 재생의 기본이 주민이어야 하는 이유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일러스트 / 이아름

이제 '집중호우', '국지성호우'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경우 장마기간에 내리는 비보다 장마 이외 기간에 내리는 호우나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호우가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자주 나타나는 호우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해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 풍수해 중에서 태풍, 호우, 강풍에 의한 피해 발생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예방 및 대책이 중점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해 제주에서도 주요시설 지진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고,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태풍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풍 발생 때부터 이동경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13명의 사망자와 약 16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2012년 '볼라벤', '산바', 2016년 '차바' 내습 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제주는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획빈도 증가 및 저류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저지대 침수지역 및 해일, 붕괴위험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가 섬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10년이 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천범람, 침수피해 위험지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일겠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 피해를 토대로 수립한 각종 계획 및 정비사업이 잘 되었는지, 개발로 인한 재해 피해를 잘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또한 최근 도에서 발표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보고서를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관리 방안 제시 및 주민대피체계 분석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지역 관리 및 현실적 주민대피로를 확보하고, 좀 더 풍수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다면 제주는 풍수해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커뮤니티센터를 찾아온 민원인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마을로 간 복지관, 그 후

글 송장희 / 사회복지사, 스마트커뮤니티센터 총괄팀장

마을주민과 사회복지사가 서로를 알아본 후로 이어진 변화는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1일, 스마트복지관 사무실을 마을회관(제주시 노형동 정촌마을회관)으로 이전했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일이다. 그동안에는 스마트복지관 사무실을 상가건물에 임대해서 쓰고 있었다. 그래서 항간에는 건물 없는 복지관이 매월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사업취지에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나 스스로도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짐이었다. 구태여 변명을 늘어놓자면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전례 없는 사업에 대한 생경함과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사업은 시작됐지만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문제였다. 스마트복지관은 청사건물을 짓지 않고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들보잡(들지도 보지도 못한) 복지관에 게 주민들이 쉽사리 공간을 내어줄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했기에 급한 대로 임시로 사

무실을 임대해서 쓰기로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위탁기관을 믿고 행정의 유연함을 보여준 당시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셋방살이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드디어 (정존)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마을회관에 들어올 수 있었다. 물론 무상임대다. 아니 '임대'라기보다는 '공유'라는 표현이 맞겠다. 이제는 마을주민들이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공간을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공유하며 함께 살게 됐다.

마을로 간 사회복지사, 그리고 변화

비록 먼 길을 돌아서 온 듯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스마트복지관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하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이동했을 뿐인데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이 아닌 마을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여러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를 알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사가 마을을 돌아다녀도 알아보기는 커녕 평소에 사회복지란 말도 생소해 하던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마을에 상주하면서부터 점점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인사를 하는 게 별거냐 싶지만, 모든 관계의 시작은 서로 인사를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제는 주민들이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고, 또 스마트복지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을주민과 사회복지사가 서로를 알아본 후로 이어진 변화는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번은 마을주민이 복지관(마을회관)에 찾아와 증강소음에 대한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다. '이런 일까지 사회복지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심을 정도로 생소한 문제였지만, 곧바로 그 주민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 상황을 알아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 또 얼마 전에는 출근길에 만난 한 할머니가 나를 붙잡고 고장이 난 핸드폰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번

봐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분은 한 시간 전부터 그 곳에서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얼핏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은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다. 이 또한 사회복지사가 마을에 살다 보니 생긴 변화 중에 하나다.

공동체와 사회복지

지난 10년 동안 내가 해왔던 사회복지가 갯바위 낚시였다면 스마트복지관에서 다시 시작한 사회복지사는 바다목장*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회복지사가 물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물속에 들어와 보니 비로소 자연 생태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이 사는 생태계를 우리는 공동체(community)라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공동체는 마을을 형성하면서 발전되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영어로는 'village' 또는 'town'이라고 하고, 한자(漢字)로는 '동리(洞里)'로 쓴다. '동리(洞里)'의 뜻은 '같은 우물물을 마시며 전답에서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사는 마을'을 뜻한다. 우리만의 전통 지리학적 관점에서 마을은 큰길, 어긋길, 셋길, 안길, 골목길(제주도에서는 올레길) 등 길의 사용 여부에 따라 길의 의미를 구성하고, 그 길과 길이 연결된 하나의 공간으로 마을을 이해해 왔



스마트커뮤니티센터가 입주해 있는 정존마을회관



스마트커뮤니티센터 차량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다. 마을을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마을과 사람 그리고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완결적 공동체로 이해해 왔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본 마을의 의미 또한 마을 구성원 간의 호혜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 중심의 공동체, 공간과 공간이 연결된 관계의 공간공동체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여 더불어 사는 생명지역공동체의 특징을 지닌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마을은 물리적 환경보다 사람, 자연 그리고 공간이 상호 공존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만들기’라는 새로운 지역사회 복지정책이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지역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는 잘 모르는 듯하다. [역사 속의 도시]에서 루이스 면포드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기계적 모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느 날 동네는 사라지고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대기업이 공급한 아파트 이름이 대신한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나 같은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불과 몇 달 전 마을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새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역사회에는(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자연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만 알고 있던 동네(행정동)는 실제 주민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 가치와 고유문화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진정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과 일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에 의해 각자의 공동체적 인식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과 조직이 구성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풀뿌리 지역사회 공동체이며, 이것이 진정한 지역자치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맞은 올렸지만 출항하지 못하는 스마트복지호

최근 또다시 스마트복지관의 존립여부를 두고 온갖 추측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스마트복지관 사업의 첫 번째 논란은 사업명칭에 ‘복지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란(란).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잘 나타나 있다. 법의 정의에서 ‘시설’만 제외하면 스마트복지관도 사회복지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문제는 ‘시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때문에 스마트복지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뭐라고 할 말은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스마트복지관도 ‘복지관’대신 ‘센터’라고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스마트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또 다른 전달체계가 등장했을 때 그동안 계속 되어온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까 걱정이 될 뿐이다. 외모를 지킨다고 해서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복지관이면 어떨고, 센터면 어떨겠나. 이제 명칭에 대한 논란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업명칭이 별로면 바꾸면 그만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스마트복지관 사업이 사회복지관의 역할수행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면 한다.

두 번째 논란은 스마트복지관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업을 추진한 꼴이다. 그 동안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례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법을 만드는 것도 어리석은 발상이다. 스마트복지관 사업도 법적인 제도 마련에 앞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였다(아마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정부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올해 제주도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책 선도사업에 양 행정시가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스마트복지관과 달리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 '스마트한 복지'는 얼마나 다를지 앞으로 2년이 기대가 된다. 스마트복지관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도 우습다. 스마트복지관의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이 사안이 논의

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복지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확산과 추진의지가 없이 논쟁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는 듯하다. 스마트복지관은 풍문으로 들어서는 절대 그 가치를 알 수 없다. 나도 제주도에 내려와 마을에 살면서 복지를 하기 전에는 몰랐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했다. 탁상행정도 문제지만 탁상복지도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복지관이,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마을로 나와 보니 이제야 깨달았다. 사회복지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마을에 사는 이웃주민이란 것을.

*바다목장: 바닷속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물고기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청정 해역에 인공 어초를 설치하고 먹이를 공급하여 물고기를 기른 후 자연스럽게 어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 참고: "김성균, 이창언(2015),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 일부내용 발췌요약



혼자 사는 장·노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상품권, 그것이 답이다.

글 이용재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세계의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고 있다.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 파편이 바다에 버려지고, 이미 해양 밑바닥에 쌓여있는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잔해 위에 또다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 잔해들은 바닷새들을 쫓고, 고래를 굶겨죽이고, 우리가 먹는 해산물과 인간을 포함한 해양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풀기위한 국제적 노력도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3월 캐나다의 데이비드 캣츠(David Katz)와 손 프랑크온(Shaun Frankson)이 공동 설립한 '플라스틱 बैं크(Plastic Bank)'가 좋은 사례이다. 플라스틱 बैं크는 가난한 지역주민에게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수거지역으로 가져오도록 장려하고, 그 대가로 'SPCC(Social Plastic Collection Credit)'라는 디지털 토큰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환급해 주고, 이 화폐를 이용해서 설탕이나 물, 커피 등과 같은 생필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플라스틱 बैं크의 SPCC와 같이 특정한 공익적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수단을 지역화폐라고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사

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보조화폐로서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돈(Money)'이라는 법정화폐와는 다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3,000여 종의 지역화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만도 약 90여 종 이상의 종류가 통용되고 있다. 제주도민에게는 제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 등 지역상품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역화폐는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외부의 자금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투자를 촉진하면서 지역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기능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글로벌 사회 및 환경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 동안 잠잠했던 지역화폐의 열풍이 사회운동과 함께 또다시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지역화폐의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다. 지역화폐의 이론적 배경에는 1916년 독일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이 주장한 '자유화폐

(Freigeld)’라는 개념이 있다. 자유화폐는 ‘이자가 붙지 않는 화폐’로써 단지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수단으로만 이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계절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화폐도 감가상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가 사용하는 ‘돈(Money)’과 같이 화폐의 액면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 그 ‘돈’은 시장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결국 ‘돈’이 고갈된 시장에서의 유통은 서서히 멈추게 된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가상각이 큰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높은 이자를 주는 더 유리한 투자대상을 찾게 된다는 간단한 경제논리이다.

실제로 1932년 대공황시대 때에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Wörgl에서 자유화폐 개념에 입각한 지역화폐 ‘뵐글 노동증서(Wörgl Labor Certificate)’를 발행한 실험이 있었다. 화폐에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3개월 단위로 화폐의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려 유통시켰더니 화폐의 유통속도가 향상되면서 암울하였던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공 경험을 남겼다. 성공이후 세계 각국은 지역의 사회적 목표와 특성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지역화폐를 탄생시켰으나 범람하는 지역화폐가 법정화폐의 유통을 제약하고 통화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을 중지시키게 된다.

지역화폐는 ‘품앗이’나 ‘두레’와 같이 지역공동체가 협동하는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유통시키는 화폐가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화폐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제주도의 경우 생산품은 농산물 이거나 수산물인 대부분이다. 이 생산품들은 시간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크게 변한다. 지자체에서는 상품의 신속한 유통을 목적으로 지역화폐인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생산자를 돕게 된다. 생산자인 농민과 어민들은 감가상각이 큰 생산품 자

체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상품권을 갖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상품권의 교환가치를 임의로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지역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게 된다. 지역화폐는 일반 ‘돈’과는 달리 시장의 미래가치에 따라 발행규모를 스스로 결정하는 융통성도 주어진다.

지역상품권에는 종이형 상품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카드형, 휴대폰의 앱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도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가 등장하여 지역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참여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암호화폐는 지금은 핀테크 기술과 융합하여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라고 부르는 전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기술을 지역화폐에 접목하게 되면 제한적 유통범위로 불편을 하소연했던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결제에 따르는 큰 불편없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뱅크가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2015년 중남미의 작은 나라 아이티(Haiti)에서 실험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순환 사회운동은 성공을 거두어 지금은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로 확장되고 있다. 나라의 하루 평균임금 2\$를 감안하면 수집해온 플라스틱 폐기물로 하루에 약 5\$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지 지역주민들은 만족해한다. 수집해 온 플라스틱 폐기물은 재생되어 ‘사회적 플라스틱(Social Plastic®)’이라는 원료 브랜드의 이름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간다.

에너지, 대중교통 문제와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지속 가능한 제주’는 공염불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90%가 중국과 인도 등에 있는 10개의 큰 강에서 해양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제주도에서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이웃나라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나의 영화, 나의 제주

영화감독 **부은주**

5월 14일.

이날은 주인공 민정의 생일이고, 사랑하는 동생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며, 마지막으로 석가탄신일이었다. 하루 휴가를 내서 부산으로 내려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의금을 받는 순간에도 회사에서는 언제쯤 복귀할 수 있느냐는 연락이 온다. 남자친구인 영기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마는 등 급한 일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떠나간다. 생일이라고 미리 예약해 두었던 남자 친구와의 저녁식사는 취소하고, 민정은 머리를 질끈 묶으며 혼자서 국밥을 들이킨다.

보랏빛 블라우스와 회색빛 바지. 그 알 수 없는 흐릿한 빛깔의 미장센과 함께 자신의 생일에 혼자서 마시는 소주. 세상에 비로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그 시절, 그 나이. 동네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께서 먹어보라며 내민 조그만 과자 하나에 비로소 민정은 웃는다.

어느 젊은 날, 삶의 중심에 내가 바로 서던 그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를 삶의 따뜻한 이야기였고, 그 날이었다. 5월 14일은.

9월, 제6회 가톨릭영화제 단편경쟁부문 본선 진출작에 부은주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우리집>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제주가 고향인 부은주 감독. 부 감독은 “내가 바라는 세상이 영화에 담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의 세상이 정말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영화라면, 부 감독은 참 행복한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 <5월 14일>중 한 장면

interview



부은주 감독

감독님의 작품 활동을 들여다보면서, 이 단편영화 얘기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5월 14일>은 그 시절을 지나온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5월 14일>에 대한 제작 후기랄까, 감독님의 작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5월 14일>은 저의 첫 번째 단편 영화예요. 실제 '민정'이라는 제주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생일에 민정이 오빠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 작은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당시에 제가 겪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과 낯선 이에게 받았던 위로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생일이라기보다는 그저 '5월 14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 특별해야 할 것 같지만 지극히도 평범한 날. 그다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작은 진심 하나를 얻기 어려운 그런 날. 애매하고도 외로운 생일을 맞은 민정의 하루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부처님의 위대한 탄생도, 모두의 축복 속에 화려한 신부도 아니지만, 생일이 매년 똑같은 날짜로 돌아와 지겨울 만큼 몇 번이고 되새겨 진다고 해도, 어느 때처럼 그 어떤 특별함 없이 지나가 버린다 해도,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각자만의 날과 그 날에 태어난 나를 한 번쯤 생각해보길 바랬습니다.



영화 <기쁨>중 한 장면

2017 농업·농촌 29초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초단편 영화 <기쁨>은 제주도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인가요

농업·농촌 29초 영화제의 공고문을 봤던 건, <5월 14일> 촬영을 마치고 무기력한 백수로 지내던 때였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도 기력도 다 써버린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도에 내려 갈까 하는 고민을 할 때였지요. 그 때 마침 농촌 29초 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고, 그 곳에 지금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제주도 그리고 상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카메라만 챙겨서 제주도로 훌쩍 떠났어요.

그 때 썼던 시나리오에는 크게 감귤 밭, 초등학교생인 주인공, 그리고 할아버지가 등장해야했는데, 제주도에 가기만 하면 너무 쉽게 섭외할 수 있는 장소와 인물들이었어요. 주인공 남자 아이는 사촌 동생,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감귤 밭은 이모네 감귤 밭이 있었거든요. 짧은 영상이라 연출, 촬영, 편집을 혼자 하는 것이 가능했고, 오직 가족들만 있으면 촬영할 수 있었던 소박하고 행복한 현장이었어요. 대상까지 받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거금의 용돈이 생겨서 <5월 14일>의 후반 작업 비용과 두 번째 영화 <우리집>의 제작비로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결국 영화 <기쁨>에서는 어린 소년의 장래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장래희망은 ‘농부’였어요. 그 짧은 시간동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상은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제작과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9초 영화제 공모 주제가 “내가 농부라면”이었어요. 그 주제를 보고 할머니 밭에서 뛰어 놀았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저의 순수했던 꿈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조사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매 학기 다른 걸 쓰곤 했어요. 한 때는 커다란 감귤 밭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도 있었지만, 주로 화가, 시인, 소설가를 썼었어요. 그 때는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가 저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부모님께서선 줄곧 ‘선생님’이라고 쓰셨는데, 그 때문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부모님과 같은 장래희망을 써서 낸 적이 없었어요.

영화 속 선생님 대사처럼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단순하지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성인이 된 지금은 직업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과 같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장래희망을 쓰던 어린 시절의 저는 ‘장래’보다는 ‘희망’에만 눈이 갔었어요.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앞으로 내가 하

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막상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아직도 철이 안 들었는지 영화를 하고 있는 지금도 어릴 때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

지난 4월 ‘2019 성남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공모에서 감독님의 <메리크리스마스>가 단편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는 어떤 영화입니까?

<메리크리스마스>는 홀로 성탄절을 보내던 준(9)이 그리는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스케치북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크리스마스 판타지 영화예요. 순수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빌려 이별의 마음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아마도 상실에 대한 건 제가 평생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잃는 것, 그리고 남겨지는 것에 대한 마음을 차갑고도 따뜻한 겨울의 이미지와 어둡고 캄캄한 밤에 빛나는 것들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어요.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썼던 단편 시나리오인데, 감사하게도 제작 지원을 받게 되어서 올 겨울에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모자란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저의 세 번째 단편 영화가 되겠네요.

현재 제작중인 작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화감독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 예정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작년 여름에 촬영한 두 번째 단편 영화 <우리집>의 후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집>은 이사를 가게 된 취업준비생 종석이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던 어린 남매와 마주하면서 의도치 않게 함께 보내는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무 살에 제주도를 떠나 처음 상경했을 때 ‘우리’와 ‘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시나리오예요. 작은 단편 영화지만 점점 다양한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저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찾아 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영화를 한참 모르고, 매번 시행착오를 겪지만,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두근거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한 불안을 견디는 일은 온전히 저의 몫이지만요.

‘앞으로 영화감독으로서 활동’이라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일단 올해의 남은 계획은 겨울까지 열심히 제작비를 모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촬영을 하는 것이고, 가을에는 <5월 14일> 이 다른 세 개의 단편 영화들과 여여 옴니버스 장편으로 소소한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단편 영화는 특성상 상영을 하거나 관객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감사하게도 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행복해요. 무엇보다도 꼭 제주에서 상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해를 잘 살고 나서, 앞으로를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고향 제주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구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주의 변화, 제주의 미래에 대해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으로서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맑은 날이면 왼쪽 창에서는 한라산이 보이고, 오른쪽 창에서는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그 모습이 딱 저에게 있는 제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의 세계를 둘러싼 그 산과 바다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스러움과 함께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해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변함없고 익숙한 이 곳이,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의 뿌리가 되어준 이 곳이. 한라산이 제주도의 중심에 우뚝 서있 듯, 타지를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자리한 정말 커다란 존재예요. 제가 가진 이미지의 대부분이 이십년을 살았던 이 곳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더 다양하고 좋은 영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합니다.

언젠가 만들지 않을까 싶은 장편 영화에 앞서 제주를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를 담은 <당신의 하루>라는 단편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그 안에 저



만의 제주를 담고 싶고, 또 이 곳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평소에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 자라며 배우고 얻었던 셀 수 없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영화에 담아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 곳에서 받았던 사랑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지 않을까 합니다.

PROFILE

초단편 영화 <기쁨> (2017)

– 농업 농촌 29초 영화제, 대상 수상

단편 영화 <5월 14일> (2018)

- 제38회 하와이국제영화제, 최우수단편상 수상
- 제1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뉴필름메이커상 수상
-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 제17회 미장센단편영화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 제7회 토론토한국영화제, 최우수단편상 수상
- 제5회 가톨릭영화제, 장려상 수상
- 제39회 청룡영화상, 단편 부문
- 제20회 정동진독립영화제, 단편 부문
- 2016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작

단편 영화 <우리집> (2019)

– 제 6회 가톨릭영화제, 단편 경쟁

영화 <우리집>중 한 장면



주의해야할 가을철 질환

글 강동진 / 메리츠화재 가정의학과 사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오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을철 열성질환으로 법정전염병인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야외활동 중 쥐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 피부 발진 및 림프절 비대가 나타납니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쥐 등의 오줌에 오염된 젖은 풀, 흙, 물 등이 상처난 피부에 접촉되어 감염되는데 7~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 뇌막염, 신장기능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농부 등 야외에서



흙이나 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사람은 장화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렙토스피라 감염증이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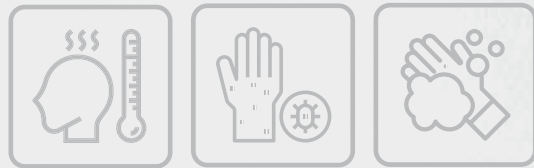
유행성출혈열은 들쥐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등)가 전파되어 감염되는데 발열, 출혈, 신장기능장애 등이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출혈, 신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발지역에 접근을 피하고 유행시기에는 잔디 위에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가을철 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① 다발지역에서의 야외 활동을 피하고
- ② 잔디 위에 눕지 않으며
- ③ 야외 활동시에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 ④ 귀가후에는 세안이나 목욕을 반드시 하며
- ⑤ 발열이 있을 경우 빨리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밤낮의 온도차가 커서 이로인한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등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감기의 증상으로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 등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증상으로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 이와같은 호흡기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 균형있는 식사, 운동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도슨 제주풍물 뜰랑 기러보게

굴림추색(橘林秋色)

조선 후기의 제주도 향토 학자였던 이한진이 품제(品題)한 '영주십경(瀛洲十景)'에 나오는 말로 굴이 익어 가는 제주성에 올라 주렁주렁 매달린 굴을 바라보며 감상하는 일을 말한다. 제주도에 귀양 왔던 추사에게 시를 배운 이한진은 선인들의 자취를 살핀 후, 제주도에서 풍광이 빼어난 열 곳을 선정해 영주십경으로 읊었는데 그중 최고의 가을 풍경으로 꼽은 것이 바로 굴림추색(橘林秋色)이다.

아래 그림을 보고, 오른쪽의 그림에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우리의 창의적 솜씨를 발휘하면서, 제주의 맛을 잠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도구와 재료 : 펜, 붓, 색연필, 파스텔, 크레파스, 크레용, 수채물감, 아크릴칼라, 연필 등 사용 가능

고재만
 화가, 미술교육가
 한국미술협회제주지회원
 그린센드아트회 회장
 (사)제주어 보전회 회원



고재만 작 (캔트지에 라이너펜, 색연필과 수채. 35 X 24.5cm)

포근한 제주풍물을 따라 그려보세요



조선시대 서귀포인들은 왜 인공수로를 냈을까

글 강시영 전 한라일보 선임기자, 인터뷰 서점 대표 / 사진 강경민 작가

내 시선을 붙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제작된 한 장의 지적도였다. 일제 강점기 1914년 우면(右面) 서귀리 지적 원도에 나타난 구(溝)의 모습이다. 구는 도랑을 뜻한다. 배수로다. 이 지적도는 1914년에 제작된 구 서귀읍내의 지적도로서 1590년 현재 위치에 서귀진 축성 때 동홍(정방)천 하류, 즉 정방폭포 원류의 물줄기를 서귀진까지 수로로 연결한 형태가 뚜렷이 남아 있는 증거다. 서귀포 원도심 굽이굽이 구석구석 맑은 물이 흐르는 '물의 도시' 서귀포를 웅변하는 생생한 사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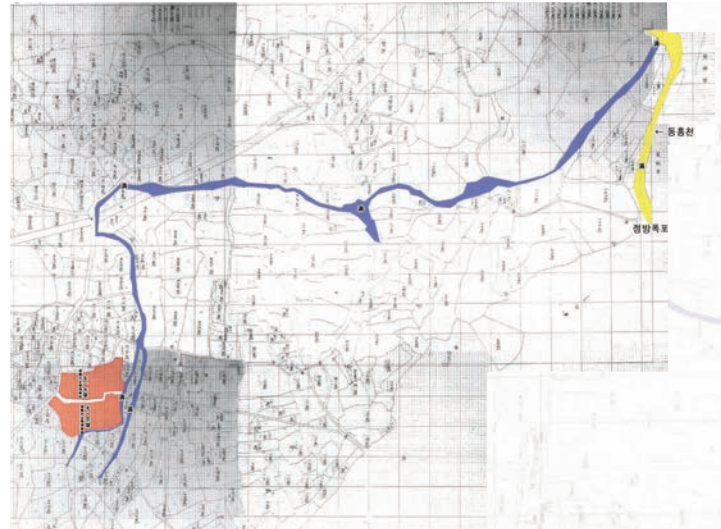
이 지적도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배수로의 존재가 도면으로 확인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고재원)이 수행한 도지정기념물 제55호 서귀진지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서다.

진성의 역사부터 들여다 보자. 제주도에는 제주읍성·정의읍성·대정읍성 등 3개의 읍성 외에도 9개의 진성이 있다. 이들 진성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축조된 것으로,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9개의 진(鎭)을 설치하고 이를 둘러싼 성곽을 쌓았는데 이것이 진성이다. 제주도에 있는 9진성은 화북진성·조천진성·별방진성·애월진성·명월진성·수산진성·서귀진성·모슬진성·차귀진성이다. 이러한 진성은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서귀포시 솔동산로 22번길(서귀동)에 위치한 서귀진지(址)를 찾았다. 설명문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서귀진은 조선시대 제주 방어시설인 3성 9진 가운데 서귀포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던 유적이다. 원래는 목사 한승순(韓承舜)이 짚은 왜구의 침략에 대비코자 1439년(세종 21)에 천지연 상류 홍로천 위(현재의 서귀포시 1호광장 주변)에 성을 쌓았다. 이후 목사 이옥(李沃)이 1590년(선조 23)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 세웠다.

〈탐라지초본〉(1842)을 보면, 정방연(正房淵)에서 이곳까지



1914년에 제작된 구 서귀읍내의 지적도로서 정방폭포 상류에서 서귀진지(빨간 부분)까지 약 1,200m 구간에 만들어진 수로(溝, 파란색 부분)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들이어 저장하였고, 남은 물은 주변에서 논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2011년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로와 우물 유구가 확인되어 2013년에 수리하였다.

〈남천록〉(1873)에 따르면, 서귀진은 성곽 규모가 둘레 233m, 높이 2.8m이고, 동서에 두 개의 성문과 객사, 무기고, 군관청, 창고 등 11동의 건물이 있었다. 또 〈탐라순력도〉(1702)의 서귀조점(西歸操點)에 당시 성곽 모습이 잘 나와 있다.

1901년 서귀진성이 폐지된 이후, 관아 건물은 정의공립보통학교, 서귀공립심상소학교 등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고, 4.3사건 때는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성곽을 밀어내어 4,3성을 쌓는데 이용되었다. 이후에는 집의 울타리나 밭담으로 활용되면서 대부분 훼손되었다.

200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지정면적 7,670㎡)된 서귀진지는 이후 부지 등을 매입하여 2013년

- 1 서귀포시 솔동산 서귀진지
- 2 서귀진지 배수로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서귀진 사적화 사업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서귀포시는 서귀진지 복원을 위해 2002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해 2009년까지 문화재구역내 사유지 25필지 5832㎡를 모두 사들이고 서귀진지 유적 발굴조사에 나서게 된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이 때 발굴조사에 착수하고 유적의 흔적들이 속속 확인된다. 배수로와 집수정, 그리고 수로를 도면에 나타낸 지적도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서귀진지 발굴조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이듬해 2월 16일까지, 2차 조사는 2010년 3월 31일부터 6월 26일까지, 그리고 3차 조사는 2012년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각 실시됐다. 이 때 정방폭포 상류에서 진성으로 물꼬를 냈던 배수로와 진성 내 집수정이 잇따라 확인됐다.

서귀진의 물의 역사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서귀진성 관련 집수정에 대한 문헌을 정리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문헌들에서 정방폭포 상류에서 서귀진성으로 물을 끌어다 쓰고 논밭에도 활용했던 기록이 전해진다.

〈남사록〉(김상헌, 1669)='성 안에 우물 하나가 있다. 성 아

래로 구멍을 뚫어 물을 끌어들었다.'

〈탐라지〉(이원진, 1653)='正方淵의 상류를 동성(東城) 안으로 끌어들여 자그마한 나무로 만든 못(木池)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한 다음 서성(西城) 밖으로 흘려 보낸다.'

〈남천록〉(김성구, 1873)='동서의 두 문이 있는데 동쪽의 문에서 구멍을 뚫어 물을 끌어 당겨 서귀진사 안에 있는 마당 가운데 땅 속으로 스며서 흐르게 해서 남쪽 성 안으로 물을 끌어 대었다.'

〈탐라지초본〉(이원조, 1842)='성 밖에는 논이 많은데, 정방연의 상류를 끌어다가 물을 대었으므로 옥토라고 불리었다. 동쪽 성에는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다가 우물을 만들었고, 나머지 갈래는 속에 둔 구멍으로 흘러 나가 성 남쪽의 밭에 물을 대었다.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의견이 매우 많았으나 농민들은 눈앞의 이익을 탐내어 다시 수로를 뚫었다. 성 안의 우물은 가뭄이 들면 마르므로 한탄스럽다.'

최종 발굴조사 보고서(2014)는 "근대 지적도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동쪽으로 약 1km 가량 이격된 동홍천에서 서귀진성까지 자연경사면을 이용해 수로를 연결했던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성 내로는 집수정으로 연결해 식수를 해결했으며, 이후 남쪽과 서쪽으로 연결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한 것은 당시 발달한 토목기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당시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은 “정방폭포 상류에서 서귀진성으로 물을 끌어다 사용했던 수로의 존재가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것이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적도의 도면으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지적도에는 배수로(溝, 도랑)가 표기돼 있으며 중간중간 집수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불룩한 모양의 물통의 흔적이 보인다. 중요한 발굴 성과 중의 하나다”고 했다. 지적도상에는 현재 소암기념관 주변 등 여러 곳에 물통의 흔적이 보인다.

서귀포시와 서귀송산마을회, 작가의 산책길 해설자회는 지난 2016년 4월 ‘과거로의 여행 솔동산 8경’을 스토리텔링화해 홍보중이다. 8경은 △1경 서귀진성(西歸鎭城)을 시작으로 △2경 목사고목(牧使古木) △3경 서진노성(西鎭老星) △4경 신작대로(新作大路) △5경 장수지원(長壽之園) △6경 송산고적(松山古跡) △7경 중섭휴의(仲燮休椅) △8경 백년수로(百年水路)다. 8경 중에 제1경, 2경, 3경, 8경 등 절반이 서귀진성과 관련돼 있다.

100년 전에 제작된 구 서귀읍내의 지적도 도면에 나타난 인공수로(溝, 구)를 따라 답사했다. 그 때 서귀포의 원풍경을 상상하면서, 정방폭포 원류 정모시~소암로~송산동사무소~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옛 서귀포시청)~서귀포초등학교~서귀진지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수로는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천에서 서남 방향으로 자연경사면을 따라 깎인 형태다. 서귀포의 선인들은 이미 400여년 전에 정방폭포 상류의 맑은 물을 도랑을 파 서귀진성까지 1.2km 길이에 수로로 연결해 성 안 식수로 사용하고 주변 논 밭 경작지로 활용했다. 물의 도시 서귀포의 귀중한 증거이다. 이를 21세기, 오늘날에 재현해낸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정방폭포 상류엔 무슨 일이

서귀포의 명소 정방폭포를 이어주는 하천은 동홍천이다. 이 하천을 처음 답사한 것은 2003년 12월초의 일이다. 그로부터

15년만인 2018년 여름 이 곳을 다시 찾아 하루에서 거슬러 올라갔다. 박원배 박사(수자원), 고정균 박사(식물), 김완병 박사(조류), 강경민(사진작가) 등 동료들과 함께 한 답사였다. 답사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귀와 눈이 열리게 마련이다.



동홍천 하류, 정방폭포 바로 위쪽이다. 주민들은 '정모시'라 부른다. 조선시대 때 수로를 만들어 이 물을 1,200m 떨어진 서귀진성으로 흐르게 했다.

초행길이 아니어서 동홍천 줄기 전체의 과거,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답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물 줄기로 소문난 서귀포를 얘기할 때 동홍천도 빠지지 않는다. 서귀포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이용하며 살아왔는지, 궁금증을 풀어준다. 정모시, 고냉이소, 산지물, 가시머리물은 여전히 서귀포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이자 수원이다. 도심 복판에 이런 자원을 거느린 서귀포시민들은 단언코 복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정모시 쉼터' 안내도에는 정모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모시는 동홍천 하류 끝 부분으로서 이 물이 정방폭포까지 이어진다. 정방폭포의 상수원으로 이 물을 끌어다가 서귀진

성의 식수로 사용했으며, 현재 서귀포초등학교 지역의 논농 사용수로 사용하기도 했다.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정방폭포를 정모연(正毛淵)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정방폭포 위의 수원지를 ‘정모시’라고 부르고 있다. 정모시는 정방폭포 상류에 있는 못을 가리킨다.

이곳에는 성인 허리 높이의 담수욕장과 징검다리, 원두막 모양의 정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돌탁자, 소규모 물레방아 등이 조성돼 있어 많은 이들이 무더위를 피해 찾고 있다. 물레방아가 있는 소공원에는 작은 도랑을 만들어 정모시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400여년 전 서귀진성으로 흘러가던 옛 인공수로의 현대판 모습인지도 모른다.

천지연 폭포수는 어디서 왔나

미항인 서귀포항과 섬을 잇는 새연교, 새섬과 문섬, 쇠섬, 범섬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줄지어 있는 곳. 천지연 하구의 광경이다. 이탈리아에 나폴리가 있다면 동방의 대한민국엔 서귀포가 있음을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천혜의 비경을 품고 있다. 바로 연외천이다.

연외천은 서귀포 시내를 서쪽으로 끼고 돌아 천지연폭포를 거쳐 서귀포항으로 이어진다. 동쪽에 이웃한 정방폭포의 동홍천 줄기와 더불어 서귀포 도심의 중심하천이다. 천지연 폭포수는 어디서 왔을까.

물의 도시 서귀포 중심 하천 연외천의 주요 수자원이자 핵심 키워드는 위로부터 솟아나, 갈매생태공원, 하논분화구, 천지연폭포, 서귀포항을 꼽을 수 있다.

서귀포에서 바라본 한라산은 그 품에 70리의 꿈을 껴안고 있다. 지난날 웅기종기 초가가 들어섰던 자리, 돌빌레왓의 자리에 아담하게 가꾸어진 전원도시. 세계적 관광도시 서귀시의 색깔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곳이 천지연이고 그 하류에 살포시 자리잡은 항구가 바로 서귀포항이다.

서귀포의 자랑인 천지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만



3 연외천 하구 천지연폭포

4 연외천 하류, 갈매생태공원과 천지연,서귀포항으로 이어진다.

모두 세 곳이다. 난대림지대, 담팔수 자생지, 무태장어 서식지다. 최근 이곳을 조사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무태장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천지연 상류에는 ‘하논’이라는 비경이 감춰져 있다. 천지연폭포 북서쪽에 위치한다. 논이 많다는 데서 유래했을 정도로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동서 방향 1.8km, 남북 방향 1.3km의 우리나라 유일의 마르(Maar · 분화구 바닥이 지표면보다 낮은 화산체)형 분화구로 ‘오름의 왕국’ 제주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분화구로 알려져 있다. 분화구는 5만년 가량 퇴적물이 켜켜이 쌓여 보존된 곳으로, 수만년 전의 고(古)환경의 비밀이 숨어 있어 타임캡슐로 불린다.

하논은 서귀포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 중 하나다. 이 곳의 분화구 원형을 생태복원해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필



하늘분화구 전경.

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을 정도다. 분화구 주변에는 동언새미, 섯언새미, 몰망수 등 용천수가 많다. 안내판에 따르면 몰망수는 분화구 동쪽 지경 바닥에 위치한 용천수로, 샘의 면적은 260㎡ 규모이며, 용출량은 하루 최대 5,000톤에 이를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이 용천수는 화구구에 격자모양으로 난 인공수로를 따라 논으로 유입돼 약 2만 6,000평의 경작지에 주요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논으로 흘러간 물은 하늘 분화구에서 가장 낮은 남쪽 화구벽의 수로를 통해 분화구 외부로 나가 천지연폭포로 이어진다. 수량이 풍부한 분화구 안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다음은 호근동에 거주하는 한 원로의 구술 증언 내용.

“하늘에는 여러 곳에서 물이 나는데, 열 군데 이상 될 거예요. 논 밖에서 흐르는 물도 있고, 논 가운데서 나는 물도 있어요. 그러니 바둑판 모양으로 논골을 만들어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서귀포 사람들은 천지연폭포 상류 하천을 가리켜 ‘숨반내’라고 부른다. 연중 용천수가 흐르는 이곳은 물이 맑고 깨끗할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해 예나 지금이나 여름철 냉수욕과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동쪽 정방폭포 상류에 ‘산지내’가 있다면 천지연폭포 상류에는 숨반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분화구 내 용천수.

답음꼴이며, 물의 도시 서귀포로서 손색이 없다.

숨반내 하루에는 하천변에 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됐다. 천지연폭포 상류, 서흥동에 위치하며 2002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연중 흐르는 풍부한 용천수와 하천, 울창한 난대 상록활엽수림, 아생조류가 풍부해 생태공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원 면적은 9만여㎡. 수생식물관찰원, 습지생태관찰원, 매화 및 야생조화류관찰원, 야생조류관찰원, 목재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서귀포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걸매공원 주변에는 60~70년대만해도 선일포도당공장이 있었다. 포도당공장은 주변에 수량이 풍부한 용천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로는 기억한다. “포도당 공장 가동을 위해 당시에는 숨반내물을 끌어다 이용했어요. 숨반내물은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아래서 솟는 물이에요. 포도당 공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남을 정도로 엄청 흘렸어요. 그 물이 상당히 좋고, 시원했어요.” 서흥동 방향으로 숨반내 상류에는 크고작은 연못과 폭포, 용천수가 이어진다.

서귀포 도심은 물 기행만으로도 하루 해가 짧을 정도다. 서귀포 도심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동흥천과 연외천에도 소정방폭포, 소남머리, 자구리, 속골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소정방폭포는 정방폭포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가면 소정방이라는 5m 높이의 물줄기가 10개 있다.

여름철에는 물맞이 장소로도 성황을 이루는 아담한 곳이다. 해안절벽 위에는 ‘소라의 성’이란 전망대가 있어 해안절경과 손에 잡힐듯이 떠있는 섬들을 감상할 수 있다.



5 연외천 상류 솜반내

6 연외천 상류 걸매생태공원

송산동 사람들은 소남머리물과 자구리물을 애용했다. 정방폭포 상단과 이어지는 소남머리에는 주민이 드나드는 목욕탕이

있다. 1급수 용천이 흘러드는 천연 야외 노천탕이다. 자구리 해안에는 자구리물이라는 용천수가 솟아난다. 바로 옆에 있는 소남머리물과 더불어 서귀포시민들의 오랜 식수원이었다.

21세기 인공수로

시대를 훌쩍 뛰어 넘어 21세기 들어 바다로 흘러보내는 표류수를 활용해 도심에 물길을 내는 인공수로가 제주에서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9년의 일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가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인공수로 구상이 잇따라 나왔다. 결론은 논란 끝에 흐지부지됐다는 것이다.

당시 제주시 원도심에 병문천과 산지천을 가로지르는 인공수로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구 시가지 50만㎡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던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핵심 개발 컨셉인 친환경적 도시조성 방안으로 인공수로가 제기된 것이다. 인공수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동서축인 산지천과 병문천 하류 지역을 연결해 도심을 관통하는 것으로 길이 1km, 폭 10m 정도 규모.

제주시 구 도심의 인공수로는 산지천과 병문천을 연계한 수변 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시가지를 해양·하천과 연계하는 공원·녹지축으로 형성하는 방안에서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서귀포에서는 관광자원 발굴조사 및 개발타당성 연구를 통해 도심 인공수로계획이 제시됐다. 도로 폭이 좁고 불법 주정차 등 구조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던 국민은행~동문로터리 간 중정로 600m 구간에 >차 없는 거리>물의 거리>문화의 거리 등 3개 테마를 가진 신개념의 '명품 도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나왔다.

이 가운데 '물의 거리'는 차 없는 중정로 거리 중앙 공간에 인공수로를 만들겠다는 구상. 이는 부산시 광복동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도로 중앙에 물이 흐르는 친수로 시설을 개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인공하천과는 다른 개념으로 하천 표류수를 인공수로로 흘러보내는 게 기본 구상이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표류수를 활용한 구도심 인공수로 구상은 논란과 토지 효율성, 재난 문제, 토지 보상 등 논란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 역시 제주 물 이야기의 한 단면이다.



에필로그

오래 전부터 제주의 ‘물 이야기’와 ‘물의 도시’를 다루고 싶었다. 취재 대상에 늘 물이 존재했던 것 같다. 비전공자의 물 이야기인 셈이다. 현장을 찾아다녔고 자료 조사와 물 이야기를 들었다.

20여년 전 제주의 하천과 계곡을 탐사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라산 대탐사 여정의 시작이었다. 전문가, 선후배들과 함께 5년 동안 16개 하천의 시작과 끝을 두발로 답사했다. 산지천, 천지연, 정방폭포, 쇠소깍, 천제연, 강정의 진수를 이때 조금이나마 느꼈다. 힘들고 지치게 했던 하천 탐사가 준 보람이었다.

물 이야기는 ‘물의 도시, 서귀포’다. 조선시대 정방폭포 상류의 물을 배수로로 연결해 끌어다 쓴 서귀진성의 교훈을 시작으로 동홍천(정방천), 산지물, 지장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지연폭포를 낀 숨반내와 하논분화구의 연외천, 쇠소깍 하구를 간직한 효돈천, 물줄기로 이름난 ‘일강정’ 강정마을, 중문관광단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문천과 천제연, 예래동 대왕수천과 논짓물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명품 마을 유후인, 생수의 고향 하리에, 용천수 관리의 모범 시마바라시, 중국 산동성의 성도(省都)이자 물의 도시 제남시의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 서울 홍제 경의선철도와 공항철도 지하 유출수를 이용한 ‘세교실개천’ 사례도 있다. 제주연구원의 박원배 박사는 제주 용천수와 수자원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는 연구자

다. 박 박사는 최근 동료 연구자들과 제주의 하천을 탐사하며 제주 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수자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스토리텔링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 첫 작품으로 올해 초 서귀포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동홍천과 연외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시절 우리는 어떻게 물을 사용하였을까. 서귀포 물 이야기 1편이다. 답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의 구술을 채록한 것이 특징적이다. 삽화도 실려 이해를 돕는다. 두 하천은 각각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로 이어진다. 연중 물이 흐르는 두 하천이 서귀포 도심을 품고 있다. 물의 도시 서귀포가 가능한 이유다. 박 박사는 서귀포 물 이야기 2편으로 강정마을을 준비중이다.

‘제주 물 이야기, 물의 도시 서귀포’는 깊이보는 서점 ‘인터뷰’ 블로그와 카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서호 호근동에 위치한 인터뷰 서점은 책방지기가 20여년간 언론 취재생활을 마치고 2018년 새롭게 동지를 틈 곳이다. 책을 더욱 깊게 들여다보는 ‘깊이 보는 서점’을 지향하는 동네서점. 제주와 네이처 관련 서적을 특화시키고 있다.

인터뷰는 매달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다. 토크 콘서트는 자연과 생태, 역사인문, 예술분야의 명사와 함께 한다.

문의 010-8633-3874

인터뷰 서점(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53 2층)

블로그=blog.naver.com/tnsdfs3874

인스타그램=<http://instagram.com/interviewjeju>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 '쌀 살아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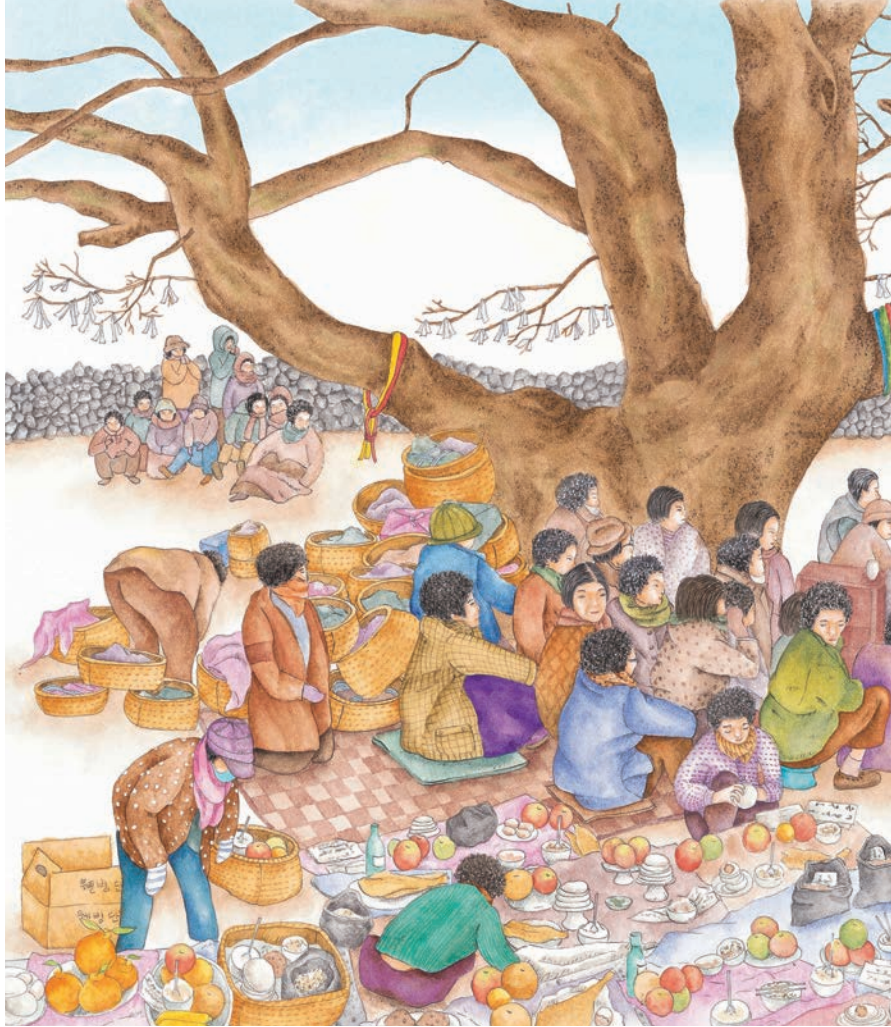
홍성보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팽나무에 걸려 있는
하얀 한지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보경



제주 중산간마을에는 ‘제주사슴책방’이라는 그림책 전문 서점이 있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를 담은 그림책과 드로잉북, 아트북, 그래픽노블 등 시각예술 분야의 책을 주로 소개한다.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책도 많은데 프랑스, 스위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나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등 다양한 국적의 책들을 판매하고 있다. 2018년 12월 1일 책방을 열기 전까지 이곳은 책방지기가 거주하던 공간이었다. 어느 날 이 공간에서 사람들과 책을 나누면 더 좋겠다는 확신이 들어 책방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몇 년간 거주하며 정성스럽게 가꾼 마당과 실내는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림책 속 세상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책방지기는 상품 패키지, 기업체 사보, 광고 등에 그림을 그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에는 소원나무가 있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그림책 작가이다.

이보경 작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반해서 제주로 이주해 지금은 책방으로 변신한 중산간의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밀어닥친 개발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제주만의 독자적인 전통문화도 함께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늦기 전에 제주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온 나무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과 소녀의 소원이 섬세하고, 따뜻한 그림체로 그려져 있어 책을 읽다 보면 조금씩 천천히 돌담



「제주에는 소원나무가 있습니다」 책 중

안으로 스며들고, 새롭고 낮은 제주 속으로 다가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작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사라져 가는 풍경들, 그리고 소망을 생각하며 이 책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따뜻한 그림책을 그리고 싶은 소원이 있다.



- 1 이보경 작가
- 2 작가가 운영하는 <제주시습책방>



2019 가을 제24호
DREAM JEJU 21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길로 따라
마음을 뽐내며
걷고 또 걷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